

# 소학생

國立圖書館

之新刊  
介紹

★ 62호 ★



아협 발행 397 11월치



# 내 동생이

응초 크림



아! 여기있다. 엄마  
아빠 혼인사건 두  
있구



이거 내가 갖  
났을 때 찍은 거  
란다



그래. 엄마가  
너 낳려  
병원에  
가는 거  
나두 봤  
단다



이 바보야. 네가 나보다 나중  
났는데 어떻게  
알어



너 엄마아빠 혼인하  
는 거 봤어? 그때  
그때 난  
봤어요



나두 봤어요 (나두 봤  
어요)

## 경쟁심리 (競爭心理)

레디오의 고성기(高聲機)로 서로 다루다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 소학생

1949년 11월 1일 발행

62호 11월치

## 차례

### 현상 작문 등요 당선 발표

#### 작문 (4—10)

오화관 (서 양희) • 밀떡 권혁길 진희  
나의 밤 (최 인숙) • 경사처 어머니 (박 보람)  
• 도끼 (최 기원) • 소리 (최 인숙)  
우리 어머니 (정 숙경)

#### 등요 (11—14)

라비던 집어 (서 양희) • 정복대 (최 영호)  
• 아침 이불 속에서 (안 경자) • 동행 구루 (장 홍자)  
• 불피고리 (김 희선) • 꽃단대 (유 근일)  
• 산길 (박 병호) • 난 (김 초남)  
• 물레소리 (김 문용) • 저리 구름 (장 인준)  
• 비탈 (이 계원) • 산 (이 창희)  
• 봄내 (양 성사) • 수양버들 (정 은숙)  
• 산행담 논 (김 상희)

#### 작품을 읽고 나서—김지영 (14)

소설 • 봄 의 노래 ..... 정인애 (18)  
소설 • 소년 삼국지 ..... 박미림 (20)  
등요 • 유 보 ..... 정대용 (21)  
등요 • 우리 아기 말 ..... 유일영 (23)

유 태 외 아 략 이야기 ..... 정 길 (25)  
표미미역 • 시골지렁이꽃 ..... (18)  
굴 속에 만들어진 띠 ..... (23)  
피카델론 • 구름은 왜 생기나 ..... (25)

새와 보 • 구름 ..... 정인영 • 유일영 (2)  
그림애기 • 육십 명은 누구 ..... 정 국 (24)  
그림속담 ..... (29) • 차차차차 ..... (43)  
만 화 • 새등생 ..... 김규태 (2)  
말장바사 ..... (38) • 작화바사 ..... (41)  
오 리 살 ..... (48) • 소학생구락부 (42)  
이건함심상 (37) ..... • 만물요 나서 (42)

#### ★ 그림 그린이 분 ★

정 현용 • 김 유권 • 김 의환  
김 기원 • 조 병덕 • 최 수현  
정창 • 정 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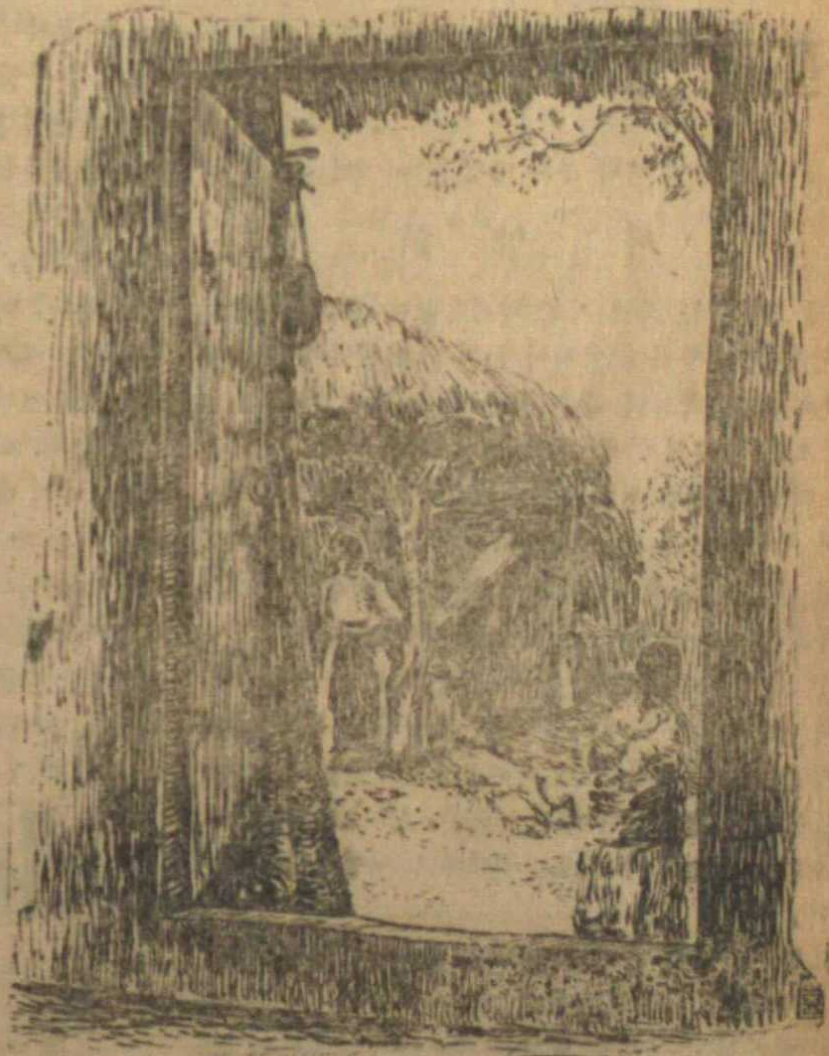


그림 • 조 병덕





# 상타기 ★ 당선 ★ 작품

## — 작 문 —

### 특등 오바공

서울 사범 대학 부속 국민 학교 6년

서 양 희

눈보라치는 적년 겨울 밤과후였다. 소제가 끝난 후, 장난꾸러기 숙경이가, 제 오바에다가 동무들의 장갑, 목도리 같은 것을 몰아 넣어 가지고, 끈으로 둥그렇게 공 같이 만들었다.

책상을 모두 뒤로 밀고 편을 짝 가지고, 교실에서 공피하기를 시작하였다. 한참 동안 신이 나서 뛰고 노는데, 누가 던졌는지 공은 "찰칵"하고 유리창에 부딪쳤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이룰 수 없이 산산조각이 나서, 뿔뿔 내리고 있는 눈과 함께 3층 아래로 떨어져 버렸다. 동무들은 얼굴이 빨개져서 서로 쳐다보고만 있었다. 운동장에서 눈싸움하던 아이들은, 웬 소리가 하고 우리를 쳐다보며 서로 무어라고 재떨거리고 있다.

"어떻거니, 우리 이러구만 있으면, 빨리 선생님께 가 사과해야지."

떨리는 음정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직하고 명랑한 봉환이의 말이었다.

"너 가라, 너 가라."

하고 한참 동안 서로 밀고만 있다가, 우리들은 다 같이 우르르 아래층 직원실로 내려갔다.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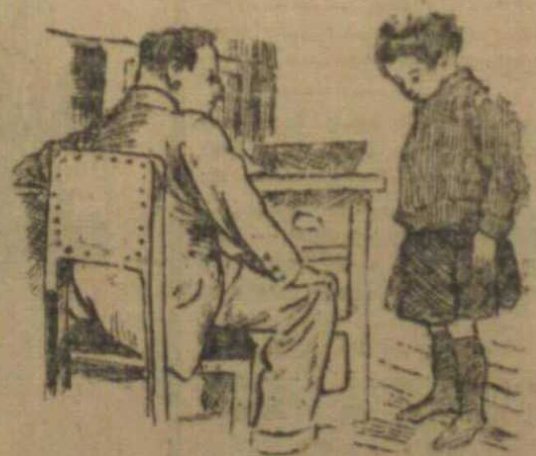
원실을 들어가다 보니, 우리 반 선생님 혼자만이 남으셔서 무엇을 쓰고 계시었다. 어떤지 선생님께서 대단히 화가 나신 것 같아서, 문을 조용히 열어 살금살금 들어 가다가는 나오고, 또 가만히 열어 살금살금 들어 가다가는 나오곤 하였다. 이때 숙경이가,

"애들아, 내가 잘못 했어. 오바공을 만든 것은 나니까 내가 가서 빌고 올래야."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동무들은

"양희야, 너 들어가 봐 너."

하고, 내가 급장이라고 나를 자꾸만 들어가라고 한다. 그러나 내가 가도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하고, 좀체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할 수 없이 내가 들어가게 되었다. 가슴을 조마조마해 가지고, 나는 선생님 앞으로 고개를 숙이고 갔다.





지난 4월, 아현에서 모집한 작문과 중요 단원지에 대하여서는, 이미 발표가 있었거니와, 이제 그 작품전부를 여기에 실거로 한다. 지금까지는 한 쪽으로 꾸며낼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도 그렇게 하지 못함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번에 특히 느낀 것은, 서양의 희양이 작문과 중요에 각각 우등으로 입선된 것이다. 우리는 그의 뛰어난 제주에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 더욱 좋은 작품을 많이 쓰기 바란다. 그러므로 한가지 절실한 일은, 동요에 입선된 "우리 아기 두살"이란 작품을

은, 남의 작품을 그대로 베껴 보낸 것이 확실하여, 입선을 취소하게 된 것이다. 남의 것을 그대로 베껴거나 흉내내면, 절대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아주 좋지 못한 비롯이다. 이번에 뽑히지 못한 분들은 다음을 기다려 더욱 힘쓰기 바란다. ("소학생" 편집부)

"선생님 잘못 했어요. 유리창을 한 장 깨뜨렸어요."

"응? 어떻게 하다가 깨뜨렸어?"

"오바공을 가지고 놀다가 깨뜨렸어요."

"오바공이 아니?"

"오바공 못쳐 써서 못쳐먹 민은 것이야요."

"너는 급장이면서도 그런 것을 말리지도 않고 같이 놀았던 말이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선생님은 한참이나 말씀을 안하시더니, 같이 놀던 동무들을 다 불러 오라고 말씀하셨다. 동무들은 고개를 숙이고 다 들어왔다.

"너는 교실에서 그런 것을 하지 마. 오바는 입고 다니는 것이야, 그런 미련한 것 다시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용서하여 주셨다. 부드러운 말씀으로 타일러 주셨지만, 잘못된 것을 안 우리들은, 얼굴이 화화 달고 눈물이 저절로 나왔다. 나는 지금도 그 오바공 생각을 하면, 한편으로는 꼭 우습기도 하고, 5 학년이나 되어 미련한 것도 했다고 혼자 부끄러워진다.

## 우등 ① 일식 관찰

충북 괴산 명덕 국민 학교 5년

김 진 희

어느 날 선생님께서 "돌아오는 5월 9일은 일식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도 그 날 학교에 와서 일식을 관찰하면 어떻게겠느냐?"고 말씀하셨다. 우리들은 모두 찬성하였다. 그 날은

일요일이나, 우리는 일식을 관찰하기 위하여 학교에 오기로 하였다.

선생님 말씀과 때외에서 발표하는 것을 들으니, 이번에 우리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일식은, 우리 나라에 드문 일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식을 연구하려고, 멀리 미국에서까지도 우리 나라에 왔다는 말도 들었다. 나는 "빨리 5월 9일이 되었으면, 그리고 변하여 가는 그 모양을 자세히 보았으면" 하였다. 우리들이 바라던 5월 9일의 전 날인 8일 저녁에는, 10시까지 기다려 때외에서 발표되는 일기 예보를 자세히 들었다. 다행히 개었다 흐렸다하는 일기 모양이라고 한다.

5월 9일은 왔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자 오늘의 일기가 궁금하였다. 구름은 끼어 있었으나 어떤지 개일 것만 같았다. 그리고 열론 개어졌으면...하였다. 나는 풍채, 열필, 콤파스, 각도가, 십자로 그런 유리...등을 준비하여 학교로 뛰어갔다. 벌써 동무들은 제가 가지고 온 연구 도구를 가지고 자랑하며 야단이다. 상훈이는 망원경과 시계도 가지고 왔다. 지금 관상대에 서도, 멀리 미국에서 우리 나라에 온 학자들도, 우리들과 같이 모든 준비를 하고 일식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운동장에 책상과 전상을 내어 놓고 기다리었다. 그러나 오늘은 유심히 시간이 느린 것만 같고, 어떤지 마음이 수저수저하였다. 사방에서 처음 보는 일식 관찰에 대단히 분주하다. 6 학년 언니들은 산에서 뛰놀고, 우리는 키 크신 전(鄭)선생님과 운동장에서 일식 관상대를 차려 놓았다. 구름은 좀처럼



개이지 않고, 우리들 마음을 더 한층 괴롭게 한다. 점점 우리를 눈에 대었다 떼었다 하나, 좀체로 구름 관제로 보이지 않았다. 9시 15분 경, 드디어 일식이 시작된 것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야아! 일식이 시작되었다. 오른쪽 위에서부터다.” 옆에 있는 영규가 소리쳤다. 서로 먼저 보려고 점점 유리관을 눈에서 멀리 하였다 가까이 하였다 하며 야단이다. 나쁜 일론 시계를 보고 시간과 일식의 모양을 그리며 넣었다. 이쪽 저쪽에서 “폼파스, 각도기” 하며 그림 그리기에 분주하고, 또 하늘을 쳐다보고 자기의 그림과 맞추어 본다. 선생님께서는 5분마다 시간을 알려 주신다. 우리들은 그 시간에 따라 연달아 그림을 그리었다. 옆에서 시끄럽게 굴던 다른 관찰반도 조용해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아무 말도 없이 자기의 관찰만 하고 있다. 나는 선생님이 알려 주시는 시간만 귀에 들릴 뿐, 다른 생각은 조금도 나지 않았다. 검은 구름은 우리들의 관찰을 방해하는 듯이 지나가고 또 지나간다. 나는 그럴 때마다 그 구름이 알미워 “바람이라도 불어 주었으면...” 하였다. 시간과 함께 우리들의 그림도 하나씩 하



나씩 더 늘어 간다. 10시 45분 경이다. 옆에 있는 춘택이가 “벌써 반이 넘어 갔다.” 하고 소리친다. 이 때 우리 관찰반은 약속이나 한 듯이 “그렇다. 꼭 반이다. 반이다.” 하고 외쳤다. 그러는 동안에 텍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리를 눈에 대었다 떼었다 하며 열심이다. 해는 시간과 함께 점점 작아진다. 사방은 점점 어둡컴컴하여

지며 마치 저녁 때 같은 기분이다. 지금까지 참 자코 있던 텍수가, 뿔안간 “금실 같이 되었다.” 하고 소리친다. 우리들은 모두 쳐다 보았다. 금실 같이 된 태양은, 그 모양이 아래쪽으로 하여 오른쪽으로 자리를 바꾼다. 하도 신기스러워 나는 환잡이나 우리를 뿔 줄을 붙였다. 마침내 해는 점점 커진다. 우리들은 먼저와 같은 재미는 없으나, 끝까지 관찰을 마치고 앉았다. 나는 오전에 배운 일식의 이치를 눈이켜 생각하고, 금실 같이 되어 왜 자리를 바꾸나? 하는 것도 생각하여 보았다. 그리고 예전 어른들은 일식을 “하늘 개가 혀를 집어 먹는다.” 는 헛된 말도 믿지 않게 되고, 오늘 아침까지 일식을 “하늘 개가 혀를 집어 먹는다.” 는 말씀을 하신 할머니 말씀이 새삼스럽게 우습게 여겨졌다. 나는 일식 관찰을 끝마치고, 무엇 큰 일이나 이룬듯이 그림 그리기를 끝내고, 할머니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 우등 ② 나의 병

시골 사범 배학 부속 국민 학교 5년

### 박 인 용

관람관람하고 세세시간 들종이 니자, 갑자기 팔이 아프기 시작하여 점점 더하여졌다. 잠을 수가 없어서 조퇴를 하였다. 리중지중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재보를 던지고 그만 커 쓰러졌다. 조금 있으러니까 어머니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소리가 났다. 나는 어머니를 보자, 나도 모르지 눈물이 흐르며 저절로 끄끄 앓는 소리가 더 크게 나온다. 뜻 밤에 일이라 어머니도 영문을 모르시는지,

“왜 그대니? 어디가 아프냐?”

하시며 방으로 들어오신다. 어머니가 옆에 앉으시니, 더욱더욱 아픈 것 같으며 짜증만 난다.

그럭저럭 해도 지고 저녁 밥도 먹은 뒤,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시는 중이다. 갑자기 연이 더 오트며 집이 뱅뱅 도는 것 같다. 어쩌나



아픈지,

“엄마—” 하고 부르며, 어머니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시고 방으로 불어 오시는 것이다.

“갑자기 왜 불렀니?” 하고 물어보시며 내 머리를 만져 주신다.

“아유 열이 상당하구나. 할 수 있니, 날이 저팔이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오늘날 짚아라 응.

날이 밝거든 가자, 응.”

다시여, 그 날 밤은 밤새도록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앓았다. 이튿날 병원에 가서 진찰이 끝난 후, 어머니는,

“어디가 아픈가요?”

하고 물었다.

의사님은,

“응...제가 좀 약해졌는 데요. 무난쯤 집에서 쉬게 하고 며칠간 다녀보시죠.”

“아유 무 달이나 집에서...” 하고 나는 혼자 속이 더 뻘뻘했다. 그리고 나서 곧

주사를 맞고 약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 왔다. 그 이튿날도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오고, 또 그 이튿날도...

이렇게 계속해서 다니다 돌아올 때면, 의사님 보고,

“이제 학교에 가도 괜찮아요?”

하고 매일 같은 말로 물어보면, 의사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아직 멀었다. 그렇게도 학교에 가고 싶으냐?”

하시는 것이다. 그 때마다 나는 그만 낙심하여 텅빈문을 나서는 것이었었다.

집에 돌아와 자리에 누어 눈을 감고 있으면, 어디 가지 생각이 자주 난다.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지금은 음악 시간일 텐데, 오늘은 무슨 노래를 배우고 있을까?”

또

“지금쯤은 세대 시간 사회생활 시간인데, 저 드도 그리고 시로 발표도 해가며, 꼭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을테지.”

이렇게 공부하는 모양과도 늘고 있는 동무들 모습이, 내 눈앞에 그림 같이 나타나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하기 한달이 지난 어느 날, 또 어머니와 같이 병원에 갔다.

“아직 났습니까?” 하고 어머니가 의사님께 물었다.

그 때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이 나오나 하고, 마음이 조마조마하여 의사님의 입만 쳐다보았다.

“네, 이제 괜찮습니다. 눈을 떠어도 좋습니다.” 하는 의사님의 말에, 어디까지 병을 빨리 고쳐 주시지도 않고, 주사도 맞기가 싫어서 꽤 미워했던 의사님이, 다시 없이 고마운 분처럼 생각 되었다.

나는 어떻게 즐거운지 발이 저절로 막 울겨지는 것 같았다.

### 입선 장사치 어머니

서울 사범대학 부속 국민 학교 6년

박 보 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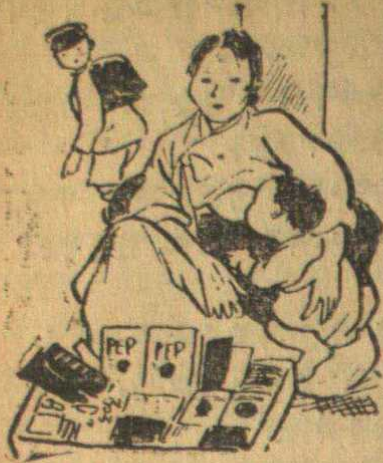
자동차가 폐소령 넘겨를 풍기  
며 먼지를 휘날리고 달려간 뒤를,  
척마차가 또 그 먼지를 품고 힘

차게 달려서, 먼지가 열새 없이  
휘날리고 있는 성동역 앞  
가에, 젓먹이 애기를 안고 어떤

장사치 어머니 한 분이, 오늘도  
저녁 때가 가까운데 아직도 손님  
을 기다리고 앉아 있다.

나직한 코와 커다란 눈, 그러  
고 조그맣고 보죽한 입을 가진  
그 어머니의 얼굴 모양은, 어떤  
저 우리 어머니의 얼굴과도 비슷





하여, 나는 언제나 학교에 오고 갈 때는 유심히 쳐다보게 된다.

무릎 앞에 굵이 얇은 조그만 상자를 놓고, 껌, 초코테이트, 양담배, 성냥 같은 것을 넣어 놓고 있다.

얼굴은 거칠게 그늘어지고, 온종일 먼지 속에서 애기를 달래고 손님 기다리기에 초조하여 피 피로하여 보인다.

애기와 어머니의 머리 위에는 먼지가 얼마나 많이 앉았는지 하얗게 보인다. 사람들은 그 앞을 많이 오고 가고 하지만, 물건을 팔아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도 어머니는 손님을 기다리며 애기와 정답게 이야기하고 있다. 피로한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고, 애기는 무어라고 중얼거리며 방긋방긋 웃고 있다. 그러다가도 애기는 가끔 귀여운 작은 손을 들어서, 어머니가 팔고 있는 과자를 집으려고 한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애기의 손을 잡으며 그 손을 말린다. 어머니가 팔고 있는 과자이면서도, 한 개도 마음대로 애기 입에 넣어 주지 못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쓰라리랴? 어떤 때는 그 전차소리, 자동차소리 요란한 한 길 가에서도, 애기는 어머니의 치마 한 끝을 잡고, 곤한 듯이 고요히 자고 있는 때도 있었다.

몇 달 전부터 만나는 이 장사치 어머니, 한 달 전 어느 날, 우리 아버지께서 도화지를 학교 판매부에서 사 쓰라고 돈 10원을 주시었는데, 그 날 마침 선생님들의 회의가 있어서 도화를 못하게 되었다.

나는 그 돈은 쓰면 나쁜 줄은 알면서도, 그 날 학교에서 돌아

오는 길에 걸 한 개 밖에 팔아 못지 못하였다.

나는 오늘도 그 앞을 지나면서 내게 무엇 필요한 것이 없나 하고 상자를 훑어 보았으나, 아무 것도 내게 소용 되는 것은 없었다. 과자 같은 것도 팔아 주고는 싶지만, 집에서는 밖에서 사먹을 돈까지는 주시지 않으므로,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웠다.

우리 어머니 얼굴과도 비슷한 그 어머니의 얼굴, 나는 오늘 그 앞을 지나면서 몇번이나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 선외 가작 ① 토끼

서울 사범 대학 부속 국민 학교 2년

최기덕

우리 집에는 토끼 두 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한 달 전에 그 중 엄마 토끼 한 마리가 귀여운 애기 토끼 일곱 마리를 낳았습니다.

애기 토끼들은 처음 낳았을 때는 몸이 모두 붉으레하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니를 보고, "언니 흰토끼가 붉은 토끼를 낳았어. 그리고 모두 소경 토끼를 낳았어." 하니, "아나 조금 있으면 흰 털도 다 나고, 눈도 다 뜨게 되어." 하고 말했습니다.

언니가 말한대로 한 일주일 있으니까, 흰 털이 점점 나서 모두 붉은 애기 토끼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일주일 있으니까, 애기 토끼들이 귀여운 조그만 눈을 모두 다 떴습니다. 나는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눈을 뜨지 않았을 때는, 엄마 토끼의 젖을 찾느라고 애를 쓰더니, 요새는 젖이 먹고 싶으면 단번에 찾아 먹습니다. 그러고 내가 요사이 학교에 갔다가 와서 물을 뜬어다 주면, 엄마 토끼는 입을 오물오물 하며 아주 잘 먹는데, 애기 토끼들은 입을만 말고 잘 먹지 않습니다. 가끔 토끼장 속에서 내 이 놓으면, 기해서 깡충깡충 뛰니다. 애기 토끼들은 언제나 저 엄마 토끼만 따라 다닙니다.

우리 집 토끼들은 참 귀엽습니다.



## 선외 가작 ② 지 각

대구 수창 국민 학교 5년

채 인 수

학교에 갈려고 책을 찾으러 국어책이 없다. 이미 저리 책에다 찾아 보았으나, 모두지 보이지 않는다. 시계를 보니 벌써 8시 50분! 할 수 없이 나는 길을 떠났다. 그러나 가슴 속은 어두워졌다. 나는 진함을 울리며 학교로 갔었다.

우물쭈물하는 지각생들은 모두 나를 쳐다 본다. 얼굴은 붉은 띠아 붓는 것이 화근하다. "선생님에게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였으나 좋은 도리는 없다. "할 수 없다. 죄는대로 되었지." 이렇게 생각하였으나, 그래도 근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입이 팔모록 지각하지 말자는 선생님 말씀이, 한 마디 두 마디 귀에 들리는 듯하다. 주선 선생으로부터 주의 말씀을 듣고 보살로 향하였다. 이젠지 가슴은 두근거리고 다리는 무겁다. 잠잠함 이층 날라는 아침 햇빛을 담뭍 받아서 눈이 부시다.

"이 날아가 10리나 되었으면..." 이번 생각도 난다. 어느 사이에 고실문 앞까지 왔다. 안에서는 공부 시작되었는 모양이다. 선생님의 말씀이 부드럽게 들려온다. "문을 열까? 그만 들까?" 나는 문 앞에서 우물쭈물하였다. 갑자기 "저기 누구냐?" 선생님의 목소리!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존재를 꼭 숙었다.

"인수구나. 왜 거기 섰느냐?"

여기 들어 오너라." 나는 할 수 없이 고실 안에 들어갔다. 이때까지 조용히 공부하던 동무들은 일제히 나를 쳐다본다. 내 고개는 더 숙어졌다.



## 선외 가작 ③ 우리 어머니

서울 창신 국민 학교 5년

정 속 경

추운 겨울은 어느덧 사라지고, 풀 피고 새 우는 즐거운 봄이 되어, 누구나 기쁨과 웃음을 먹고 또 새로 힘을 돋우어 일 할 때, 절망하시던 어머니의 몸이 점점 의약해지시어, 마침내 마포에 계신 할아버지 댁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시게 되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어머니께서 안계시었다. 나는 웬 일인지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머니 치료 받으러 갔어요?" 하고 방안에 앉으셔서 두 눈을 찡그리시며, 무엇인지 깨닫고 계시

"인수, 왜 지각했느냐?" 선생님의 부드러운 그 목소리에 마음은 좀 놓인다.

"저 저 국어책이 없어서 찾다가....."

"응, 책은 전날 잘 치며 두어야 한다. 들어 가거라." 화끈거리는 땀을 꼭 속이고 책상에 앉았다가 책상 안을 살펴 보니,

"이것, 국어책이....."

는 할머니께 여쭙어 보았다.

"응, 너 언제 오니? 아까 오전 중에 갔지."

하고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음성도 약간 떨리시었다. 방 안은 잠시 침묵에 잠기었다. 할머니께서 하시던 일을 계속하십니다. 두 동생만이 따뜻한 봄 벌을 벌이 가며 걸 가에서 노는 모양이다.

"며칠 동안이나 치료를 받으시지요?"

하고 할머니 옆 가까이 가 앉으며 또 여쭙어 보았더니,

"자세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나아 오겠지."

할머니 말씀을 울렁거리는 가슴



에 억지로 간직할 채, 부엌으로 나갔다.

그 날 밤은 어머니 한 분이 한 계시절만, 집안이 몹시 쓸쓸하고 적적하였었다. 그 후 마포에 가신지 꼭 10 일째 되던 날이었다. 새벽 시간이 시작되는 싸이데이 나는데, 등성이 현래 발딱거리면서 뛰어 왔다.

“엄마 왔어; 엄마, 점심 시간에 오라고……”

뒷발을 잊지도 못한다.

“응 그래 갈게.”

하고 집으로 돌려 보내었다. 10 일 동안 낮이나 밤이나 뵈고 싶던 어머니께서 오셨다는 말을 들으니, 어찌나 기쁘지 몰랐다. 뛰어가고 싶었으나, 공부 시간이라 다만 점심 시간되지만 기다렸다. 배제 시간 공부가 끝나자, 곧 집을 향하여 달려가니, 과연 어머니께서 방에 앉아 계셨다. 북바치 오르는 기쁨에 “어머니” 소리도 못하고 어머니 무릎에 엎드려왔다. 따뜻한 어머니 손이 나의 뒷머리에 닿았을 때에는, 어머니 무릎에는 나의 눈물로 글게 물드



리고 있었다. 창 틈으로 마스란 햇빛이 고요히 스며 들고 있었다.

“기쁨에 넘치어 나오는 눈물로 있다.”

고 하신 선생님들의 말씀이 생각났다.

—너희들이 어찌나 보고 싶은지 낮지도 않은걸 무리하고 졸로버 왔다.—

고 하시는 말씀을 듣자, 나는 무엇이라노 어머니께 어루어야 좋을지 몰랐다. 시간은 자꾸자꾸 흘러 다섯째 시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점심도 안 먹은 채 학교로 갔다.

“낮게 못하였기 때문에 또 가야겠다.”

는 말씀만이 귀에 들릴 뿐이였었다. 어느덧 때는 서늘으로 넘어가고, 양배 같이 불의 다니는 듯한 구름이, 붉은 꽃송이로 변하여 절 제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를 찾는 어린 동생들의 울음소리인 소리가 밤 안에서 울려 울 뿐이였다.

이렇게 살살리 저녁저녁 한 달만에, 기쁨에 넘치는 날이 왔다. 명이 완전히 나오시어 집으로 오시던 그날 밤에는, 온 집안 식구가 한데 모여 지내온 어머니까지 이야기를 서로 주고 받고 하였다. 정난라기에 그말뿐 어린 동생의 꼬고는 소리가, 어머니 무릎 위에서 울며 오기 시작하였다. 길어 가는 고요한 밤에 그림던 어머니 옆에서, 자정이 넘도록 졸졸게 이야기한 것은, 두 번 맛볼 수 없는 일일 것이다.

★ ★

## 틀리기 쉬운 말 李永哲 지음

맞춤법 가운데는 헛갈리기 쉬운 말, 곧잘 틀리기 쉬운 말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꼭꼭히 알아 두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책은 틀리기 쉬운 말을 모조리 주면서 자세히 설명한 책입니다.

책값 80원

서울 鍾路 永保 빌딩 兒協發行

## 學生朝鮮語辭典 李永哲編纂 李燕昇監修

국어 공부에 열심인 여러 학생들은 이 “학생 조선어 사전”을 한권씩은 꼭 가지셨을 것입니다. 만일 아직도 안가지신 분은, 지금 곧 주문하시어 언제나 집에 놓고 보시도록 하십시오.

책값 250원

서울 鍾路 永保 빌딩 乙酉文化社 發行  
振替 京號32543番



— 동 요 —

# 퉁 타 버린 집터

서울 사범 대학 부속 국민 학교 6년

서 양 회

산 밑의 외따로운 오막살이 집,  
지난 해 겨울에 불 타 버리고,  
주춧돌만 소뭇이 남았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고요한 산 밑,  
오막살이 재가 되어 검은 집 터엔,  
필레꽃이 곱게 피었습니다.



## 우등 ① 전 북 대

경기도 연백군 풍천 국민 학교 2년

박 영 호

저 산 넘어 전북대는,  
어디까지 갔나요.

전북대에 귀를 대고 가만히 듣자면,  
서울 언니 목소리도 섞인 것 같아.

언니 언니 불렀더니,  
우병이 참던 순희가 대답을 해요.]





입 선 ⑥  
산

서울 중앙 국민 학교 3년

이 창 화

산, 산, 푸른 산,  
푸른 산은 꼬가웃.

산, 산, 붉은 산,  
붉은 산은 빨가웃이.



입 선 ⑧  
봄 비

경남 부산진 국민 학교 5년

양 성 자

봄비는 부슬부슬 부드러워요.  
시냇가 자갈들도 부드러워요.

봄비는 부슬부슬 실과 같어요.  
시냇가 양버들도 실과 같어요.

봄비는 팟들팟들 눈을 뜹니다.  
배추도 반갑다고 눈을 뜹니다.



봄비는 팟들팟들 잠깨웁니다.  
모두 모두 팟들팟들 잠깨웁니  
다.

입 선 ⑩  
수 양 버 들

서울 사범대학부속 국민 학교 5년

정 은 숙

연못가에 수양버들,  
언제나 머리 곧 수양버들  
말래하는 새악씨끼,  
머리 감아 달라고  
흔들흔들 조른답니다.



입 선 ⑪  
선 생 님 눈

대구 수창 국민 학교 2년

김 상 태



선생님 뒷목지에 눈이 있다.  
뒤에서 장난해도 잘 아신다.  
옆에서 장난해도 잘 아신다.

아 협  
상 라 기  
작 문

1. 특 등 ① 오 바 공

매복도 잘 지었다. 글의 바리  
가 부끄럽게 몰랐고, 서사가 순  
서 있고 쓰리 있으면, 서정이 무  
리없이 잘 어울린다. 직현실에  
들어 갈 적에 여정의 대보와 거  
동이 그럴듯하며, 선생님은 아무  
자랑 없이 글을 쓰고 있건마는,  
매단리 화가 나실 것으로 본 것  
은, 그 직 자기자신의 심정을 민  
통 없이 그림 같이 잘 그려 냈다.  
적 마음이진 글승려다. 그러나  
"결월 내리고 있는 눈과 함께 면  
어졌다"든지, "참피승하던 아이  
들이 쳐다보며 직전저리었다"는  
등의 아리는 너무도 재주를 부리  
었다. 그리고 전체의 절구로 보  
아 구집시 없는 아름다운 글인데,  
국민 학교 6학년 생의 글로는 그  
구상이 좀 지나친 느낌이 있다.  
그러나 동심이 잘 나타남 것으로  
보아 다른 의심은 없을 것이다.

2. 우 등 ① 일 식 관 찰

이 글은 기사문으로서 잘 되었  
다. 일식을 관찰하는대로 지서  
있고, 쓰리 있게 아무 꾸밈 없이  
진실하게 썼다. 이런 솔직은 잘  
거르면 앞길이 매우 유망하다.  
이 글은 전편으로 보아 잘 지었  
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흠이  
많다.



# 작문·동요를 뽑고 나서

조선어 학회 이사장 장 지 영



(장 지영 선생님)

## 3. 우등 ③ 나의 병 동 요

첫째로 글 소리를 팔방팔방으로 윙윙대는 문법이다. 둘째로 글이 아름을 쓰되 정리가 제 심하도록 써오다가, 그 아름에 와서 "그럭저럭 뭐고 뭐고 밥도 먹은 뒤" 라는 귀찮은 줄 짓은한 느낌을 주어서 얼마를 실거운 뜻이다. 셋째로 "어머니는 알치마에 손을 남으시고 방으로 들어오시는 것이나"는, 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속무로 새롭지 못하다. 그런데 이 작가는 아마도 소설을 더러 읽었으며, 거기에서 모방한 점이 많은 뜻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의사에게 묻는 말도, "어디가 아픈가요?"는 꼭 서둘러 보인다.

## 4. 입선 장사치 어머니

이 글은 서술도 수단있고 묘사도 재치있다. 그러나 솜씨가 좀 느슨한 것 같고, 더우기 "어머니가 팔고 있는 피지이면서도 한겨도 마음대로 얘기 입에 넣어 주지 못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쓰라리랴" 하는 이 구절은, 마치 세경고에 서말린 어른의 말과 같아서, 어린이의 글로는 재미 없다. 어린이의 글은 어린이의 심정에서 나오는 글이 되어야 좋다.

## 1. 특등 타버린 집터

이 동요는 그 거칠고 참담한 제목을 가지고 제 부드럽고 곱게 지었다. 그런 가운데, 그 쓸쓸하고 가련한 심고는 읽는 이에게 실감을 준다. 이 작가는 타침다갈 하면서 그 구상이 침착하고 세밀하다. 작문 "오바문"과 한 솜씨로 매우 정리가 유망하다.

## 2. 우등 ① 전 북 대

이 동요는 동심이 나타난 것으로 좋다. 그러나 그치 정범하다. 이 동요는 꼭 재미있다.

## 3. 우등 ② 아침 이불 속에서

이불 속에서 잠이 깨어 눈을 팔 안히 뜨고 누워서, 무엇을 요리 조리 생각하고 입속으로 중얼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 그러나 국민 학교 2학년 일곱살 되는 어린이로서, 이런 말을 접어다가 이 제목에 매어보려고 할 생각이 날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는다.

## 4. 우등 ③ 동생 구두

나 보기에는 이 동요가 우등 다섯 가운데에서 제일 나은 것 같

다' 이것은 2학년 어린이로서, 저에게 맞는 생각을 저에게 맞는 글로 쓴 까닭이다.

## 5. 우등 ④ 봄 저고리

이 동요도 잘 되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노래가 이미 아이들에게 많이 불려졌다.

## 6. 우등 ⑤ 돛 단 배

이 동요는 풍경도 아름답고 글도 아름답다. 그러나 이러한 풍경을 어린 아이로서 이처럼 느끼 받을 수 있을는지 의심한다.

이번 작품을 잘라 주신 김생님은 다음의 일곱 분이시었습니다.

- 이 병기 선생님
- 장 지영 선생님
- 이 회승 선생님
- 정 지용 선생님
- 피 천득 선생님
- 윤 석중 선생님
- 조 풍연 선생님



# 봄의 노래

정 인 택  
그림·정 현웅

## ●(1)

형태는 유치장 속에서, 고스란히 하룻밤을 뜬 눈으로 새었다.

출기도 하였다. 구역질이 나도록 이상한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차 있었다. 물것이 틀끓었다. 하여튼 모든 환경이 콕콕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유난히 눈만 번쩍어리는 누렇게 들뜬 때 물은 얼굴들! 자탈대로 자탄 수염, 쭈세미가 다 된 의복, 짧은 이도 짧은 이도 모두 말 없이 괴미한 등불 아래, 가늘게 몸을 떨며 웅충그리고 앉아 있는 풍경! 처음 대하는 형태는 그만 정신이 아득하여, 몸을 떨떨 떨 뿐이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차차 그런 풍경에 익숙해 감을 따라, 형태는 전후 사정을 가만히 생각할 여유를 얻게 되었다. 형태는 한 구석에가 쪼그리고 누어, 생각한다.....

한심하였다. 처량하였다. 모범생이란 이름을 듣고, 급장까지 하던 자기가, 비록 어긋난 누



명이기는 하지만, 유치장에까지 들어 오게 된 것을 생각하니, 어린 마음에 분하기 짝이 없었다.

분하고 원통하나, 탓할 곳이 없었다. 따져 보면 모두 자기의 잘못이기 때문이었다.

처음 시초는 미아리로 이사 가서, 동무를 잘못 사킨 탓이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동호를 피이듯이, 형태는 그 동무의 책임을 받아, 길을 잘못 들기 비롯된 것이었다. 그 당시의 형태의 가정 환경이, 가두이나 불행해서, 거기다 채찍질을 했던 것이다.

동대문 안에서, 동호네 집과 걱정해 살 때까지는, 형태도 다

른 아이들 모양으로 불행이란 모르고 지라 왔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주 집을 비이기 시작하실 무렵부터, 형태의 집안엔 찬 기운이 들기 시작했었다. 그게 바로 형태가 입학년 되던 해 일이다.

머칠만큼씩 한번 집에 들어오는 아버지는, 들어 오시기만 하면 어머니와 싸우셨다. 아직 어린 형태는, 어느 편을 들 수도 없고 하여, 그럴 때마다 비실비실 집을 피해 나가는 수 밖에 없었다.

한번은 실어 일이 넘도록 아



비치가 집에 돌아오시지를 알았다. 어머니는 형태를 부르시더니, 편지를 한장 내어 주시며,  
“이것 아버지 갖다 드리구... 돈 타와!”

꾸깃꾸깃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집에 안들어오시기 시작한 후부터, 쉼 일인지 어머니는 형태에 지 몰시 팔팔하게 구셨다.

형태는 편지와, 어머니가 그리 주신 지도를 받아 들고, 처음으로 미아리라는 곳을 찾아 갔다.

아버지는 마침 집에 계셨다. 그러나, 들어오는 형태를 바라 보시는 아버지의 눈에는 노기가 가득 차 있었다.

“너.....뭘러 왔니?”

형태는 처인 모양으로 마루 끝에가 쪼그리고 앉아서, 말 없이 어머니의 편지를 내어 밀었다.

“알았다구 그래! 그리구 팔리가!”

아버지는 편지를 받아, 읽지도 않으시고 쾅개치시며 성을 내시었다.

그 때 젊은 여자가 갓난애를 안고 안방에서 따라 나오며,  
“개가 형태유?”

하고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는 말 없이 끄덕이셨다.

“언데 손절.....좀 앉았다 가래지 그냥 좃으시우, 당신두 참.....형태야, 이리 올라 온, 췌 잡아 여기두 너의 집야.”

그러나, 형태는 쉼 일인지 그 여자의 친절이 고맙지 않았다. 억지로 지어 웃는 웃음도 정글 맞았다.

## ☆ 61호까지의 대강 이야기 ☆

동호는 29일 전까지 장이 허피라 다 나린 중무 형태를 삼년만에 길에서 우연히 만났다.

동호는 “형태”이란 인명대로 여실히 키도 작고 몸도 가늘었으나, 형태는 잘라 보려만 할 숙청해서, 이미 “형태”란 별명도 어울리지 않았다. 저구만 그렇게 깎을 뿐 아니라, 형태는 이른 것이 세상 물건을 잘 알았다.

형태는 동호를 극장도 데리고 가고, 창고에도 사 주고 한다. 허피 외의 그런 씨체가 있는걸 처음 알은 동호는, 형태의 유혹에 빠져 아주 나쁜 아이가 되고 만 것이다. 그래서 하루는 형태의 형을 찾아가, 집에서 돈을 돌려 내긴다.

그런 일이 있을 후, 동호는 양심과 가책을 못이기에, 여러 가지로 생각한 나머지, 형태와 떠서 살아가고 싶어 결심한다. 다시 작은 아이가 될 작정인 것이다.

그러나 형태는 반죽 장계 집으로, 허피도 동호의 뒤를 따라 이너서, 자주 돈을 달라고 졸라 낸다. 그마! 동호에게 돈이 있을 터 있었나. 그것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리가 더지도록 써온다.

그 때 형태는 동호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이자야, 빈애네 데미우 없는 자식이. 열어가 기른 개구림방이야.”

그 후 자주 이 집에 드나들게 되자, 아버지는 이 여자마자 “어머니”라 부르라 하셨고, 그러고 그 갓난애는 “내 동생”이라 하시는 것이었다.

그 때부터 형태의 주위에서 행복은 자취를 감추고 만 것이다.

이윽고 아버지는 “야미”를 하였다는 죄로 일본 경찰의 손에 붙들려 가시더니, 몇달 징역을 살고 풀려 나오시자 마자, 동대 문 안 집을 팔고, 미아리로 아

그 말을 듣자 동호는 하늘이 무너진 듯 놀란다. 정말일까? 거짓말일까?

동호는 정신 없이 길을 쫓아나며, 어떻게든지 가서 형태를 다시 만나, 진실을 알고 싶었던 것이다.

“형태가 잠시 죽었다. 동호는 그에 어느 극장 안에서 명도 (우명) 하고 만나.

한편 형태는 중호와 싸우고 헤어진 후, 권무선수 김 명순을 찾아 가서, 집에 있지 못할 사정이 있으니 돈 좀 빌려 달라고 청한다. 그 돈을 마련으로 명도 장사라도 해서 혼자 살아가겠다는 것이다.

김 명순은 금 권 원을 내어 주며, 여러 가지로 친절하게 걱정을 해 준다. 형태는 김씨의 눈물을 흘리며, 그 돈을 받아 기쁘고 경의를 한다.

돈자 안에서 형태는 어릴라게 소매치기로 걸리어, 경합사기 잡혀 가서, 결국 유치장까지 들어 가게 된다.

동호는 극장에서 돌아와, 며칠 동안을 앉았다. 당연히 꾸지람을 듣거나, 매를 맞거나 할줄 알았었다. 일인반구 많이 안 소신게 더욱 동호를 불안하게 하였다.

불안하게 할 뿐 아니라, 언어, 기온 자괴이어서 처지도와 하지는게하고. 그런 의심이 점점 깊어 진다. 그러자, 아버지의 밑기에서, 아버지는 동호가 돈 돌려 내긴 일까지 마 알고 계시려는 사실을 처음 알고, 동호는 감당 놀란다.

주 살림을 떠 옮기셨다. 물에 기름 같이 형태와 어머니는, 한 집에 살면서 걸으므로만 떠 돌았다.

그런 처지면, 형태와 어머니 사이만은 친밀해져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쉼 까닭인지 그럴지도 못했다. 도리어 그럴수록 어머니는 더욱 형태를 구박하시고 학대하셨다.

형태는 부모 슬하에 있으면서도 의지할 곳이 없었다. 발 불





여기까지 형태의 생각이 미쳤을 때, 동이 뜨기 시작 하여, 음산한 유치장 안에도 희고 무례한 광경이 찾아 들어 왔다.

(2)

정말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아직도 살아 저질까? ...형태는 불현듯 그

일 곳이 없었다. 학교까지 그만 둔 형태는, 하루 종일 밖으로 빙빙 돌며, 같은 처지, 같은 또래의 나쁜 동무들만 사귀게 되었다.

그러자, 하루는 그 동무의 입을 통해, 형태는 자기 일신상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들었던 것이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개구멍반이라는 것이었다.

결혼한 후 십 년이 넘도록, 어머니는 아이를 낳지 못하셨다 한다. 그러자, 누가 형태네 집 문간에다 어린애를 갖다 내버렸다고 한다. 마침 사내 아이라서, 형태네 집에서는 그대로 기르게 되었다 한다. 그 아이가 바로 형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다른 여자...미아리 어머니...의 몸에서 아들을 낳으신 후부터는, 아버지는 전 같이 형태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고, 소박 당한 어머니도 또한 형태를 귀애하실 까닭이 없었던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형태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영영 울었다. 하늘이 무너진 듯, 땅이 꺼진 듯, 이런 형태였으나 순간 절망만을 느꼈던 것이다.

듣고 보니, 다 옳은 말이었다. 형태는 비로소 자기의 처지가 얼마나 슬프고 처로운 것인가를 절절히 느꼈다.

형태는 세상 만사를 믿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속은 것이 분했다.

길러 준 부모도 미웠고, 낳아 준 부모도 미웠고, 그것을 지금까지 숨긴 주위 사람들도 미웠다. 동시에 그것은 모순된 생각이었으나, 그것을 자기에게 알려 준 동무도 또한 미웠다.

친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생각 보다는, 모든 것에 대한 반항심(反抗心)만이 형태의 가슴 속에서 이글이글 불타 오르기 시작하였다.

해방 직후의 혼란된 사회는, 이런 빼돌어진 소년의 마음을 바로 잡아 줄 여유를 가지지 못했었다.....

불분을 만나 보고 싶었다.

지금까지도 때때로 그런 생각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유치장에 떨어진 덕으로, 골골히 지난 일을 생각하고 반성하고 할 기회를 처음 가진 형태는, 이리 가지로 곁이 쳐우치는 동시에, 전에 없이 친 부모가 그리워졌던 것이다.

그러다가 형태는 깜짝 놀라 자기 주위를 돌아 보았다. 이런 데 들어와 앉힌 몸이, 무슨 닢으로 부모님을 대할 것이냐?... 그런 생각이 퍼뜩 든 것이다.

시체를 훔쳤다는 것은 누명이 다. 그것은 그렇거니와, 그러면 내지는 정말 아무 죄도 없는가? 하고 형태는 자기 자신에게 물어 본다.

유치장에 들어올 죄는 없다 하더라도, 부모에게... 길러 준 부모도 부모가 아닌가... 그리고 동무에게 형태는 그보다 더 큰 죄를 졌다 할 수 있었다. 제 자신 생각해도, 그것은 도저히 용서 못받을 중죄(重罪) 같았다.

“이 형태.”



간수가 부르짖는 소리에 형래는  
감방 안에서 고개를 번쩍 쳐들  
었다.

“나와!”

“네.”

형래는 언어 복은 뜻한 사지를  
억지로 움직이며 밖으로 나왔  
다.

밖에선 어제 라기를 묻조하던  
경관이 기다리고 있다가, 빙그  
레 웃으며,

“잘 왔니?”

하고 물었다. 형래는 말 없이  
머리만 끄덕 하였다.

형래를 이층으로 데리고 올라  
간 경관은, 자기 책상 앞에 가서  
한참 무엇인지 적고 있더니, 이  
윽고,

“이리 와 앉어!”

의자를 끌어다 놓으며 형래를  
불렀다.

“고생 했지?”

“네.”

어제 같이 고집 세인 형래가 아  
니었다. 형래는 다수뚱하고 고  
개를 숙인채 대답하였다.

“그래, 잘 생각해 봤니?”

“네.”

“뛰든지 묻는데도 정직하게  
대답하지?”

“네.”

“착하다. 그래야 쓰지...너의  
집이 어니었지?”

“저어...”

형래는 잠깐 망서리듯 나서,  
“...집에 알리지 마세요. 알리  
면 안된 일이 있어요. 그래야 대  
답하겠어요.”

형래는 슬가량이 되어 애원  
하듯 말했다.

“그래, 안알릴테니 말해!”

“미아리 X X 번지예요.”

“아버지 어머니 다 제지나?”

형래는 고개를 쳐들었다. 눈  
두덩이 부은 눈에 이슬이 맺혀  
있었다.

“아버지는.....”

이제껏 아무에게도 이야기한  
일이 없는 자기의 비밀을 토로하  
려는 것이다. 말하는 형래가 들  
는 경관보다 더 긴장한 것도 퍼  
이승지 않은 일이었다.

형래는 혀름 혀름, 자기가 세  
상에 태어나서부러의 기구한 운  
명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어렸을 적엔 그래도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제법 행복스럽

### 아무리 오래 되어도

### 시들지 않는 꽃

꽃이라면 나중엔 시들어 버  
리는 것이라고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아주 이상하게  
도 영원히 지지도 않고, 쓰지  
않지도 않는 꽃이 있으니 얼마  
나 놀라운 일입니까?

남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모  
되는 케에프라운입니다. 그러  
고 아프리카의 남쪽엔 끝을  
케에프•포인드라 부르며, 그  
일대 지금으로부터 457년 전에  
모모아 사람비아스토포•더아스  
가 발견한 희망봉(喜望峰)이  
있습니다. 거기 부근에 오면 오  
른쪽은 개서웅, 왼쪽에는 인도  
양의 넓은 바다가 보이고, 아주  
웅대(雄大)한 성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꽃은 해안이나 가  
작은 풀밭이 죽 말려 있습니  
다. 그 사이에는 눈보다 더 흰  
빛, 또는 연분홍 빛 등의 아름  
다운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죽화 꽃 같이 꽃잎이  
모래에 있는 것도 있고, 페랭이  
꽃 같이 한결으로 된 것도 있  
습니다.

이 꽃에 구경을 오는 사람들  
은 모두 이 꽃을 따 가져고 가  
는데, 이것은 마치 종이로 만  
든 꽃 모양으로 바삭바삭 꽃잎  
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결코  
시들거나 또는 죽지를 안는다

고 합니다. 만약 이 꽃을 집에  
가서다가 화병에 꽂아 두면,  
1년이고 2년이고 똑같은 꽃  
이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을 에퍼링그•프라우어(永遠  
한 꽃), 또는 칠세화(七歲花)라  
고 부릅니다.

어느 때, 한 사람이 이 케에  
프•포인드 근처에 가서 그 꽃  
한 개를 따서 놀다가, 그것을  
떨어뜨리고 갔더랍니다. 그 후  
7년이 지나 그 사람이 또다시  
우연한 기회에 이 꽃을 보게  
되어 가 보자, 그 전날 떨어뜨  
린 꽃이 옛날과 조금도 변함  
없이 그대로 있더랍니다. 그러  
서 그 사람은 이 꽃을 칠세화  
라고 이름지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계 자리나다가 차차 집 안에 불  
화가 일게 되자, 생활 따지 곤궁  
해졌고, 그래서 부모가 냉대하  
기 시작한 이야기, 학교도 그만  
두고 놀고 있게 되자, 자연 나쁜  
동무들과 추축하게 된 이야기...  
그러자 하루는 중대한 비밀을  
알게 되어, 눈 앞이 캄캄해진 이  
야기...그 날부터 의식적으로 소  
년답지 않은 나쁜 것만 하여 왔  
다는 이야기...그래서, 생각다 못  
해 담배 장사라도 시작해서 혼  
자 생활해 가며, 어떻게든지 해  
서 친 부모를 찾을 결심이라는  
것...형태는 하나도 숨기지 않고  
자기의 경력 전부를 경관 앞에  
고백하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돈 천원  
은, 김 명수씨가 담배 장사 미천  
으로 귀어 주신 것입니다. 절대  
로 남의 것을 훔쳤거나, 도둑질  
했거나 한 짓은 아닙니다. 이것  
은 어제 또 말씀했지만, 김 명수

씨한테 물어 보시면 곧 알거예  
요...”

“그러니까, 시계두 너가 훔친  
것 아니란 말이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만은  
정말 모릅니다. 어제 그 시계가  
제 주머니 속에 들어 있었는데,  
저는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이  
것만은 맹세해도 좋아요...”

경관은 고개를 끄덕이였다.  
형태의 고백을 그대로 믿고, 이  
비 더 의심하지 않는 기색이었  
다.

오래 가슴 속에 간직했던 비  
밀을, 속 시원하게 툭 털어 놓  
고 보니, 형태는 얼마큼 짐이 가  
벼워 전똥 래서, 후우 한숨을  
내 쉬고, 두 주먹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 때, 부산하게 방으로 불어  
오는 사람이 있었다. 의외에도  
김 명수였다. 형태는 어쩌나 반  
가운지, 차타 달려들어 김 명수

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김선생님!”

그만 잡고 잡았던 울음을 터  
뜨리고 말았다.

“형태나? 알았다. 울지 말어.”  
김 명수는 형태의 등을 두드  
리며,

“어려 가지로 예를 거처서 의  
송합니다.”

그렇게 경관에게 인사를 하었  
다.

### (3)

김 명수의 보증으로 형태는  
우사리 경찰에서 석방되었다.

긴장이 썩 풀려, 자동차 안에  
서 꾸벅꾸벅 조는 형태를, 김 명수  
는 빙그레 웃으며 한손으로  
부축해 주고, 집에 다올 때까지  
깨이려 하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김 명수는 형태  
를 앞에 불러 앉히고 이렇게 말  
했다.

“너를 남지는 안으셨을 망정,  
이제껏 길러 주신 은혜는 은대  
다. 양부모는 부모가 아니라드  
냐. 그러니까, 그 부모가 너를  
좀 소홀히 대하셨다구, 야속  
히 생각대신 못한다. 그러구,  
원래 같으면 네 부모님의 송년  
없이, 내가 네 귀를 죄 줄 수는  
없지마는, 사정이 사정이요, 또  
이왕 내친 걸음이니 그것은 염  
려 마라. 그러나 나중에 네  
모님께한테 원망 듣지 않도록  
너가 훌륭한 사람이 돼 주지  
아시는 안된다. 그것을 약속  
야 내기 책임을 지지. 경찰  
서무 그것을 생각해서, 너를





아리루 알보네구, 내제 말걸기야. 알었니?”

“네. 훌륭한 사람이 제사, 만드시 제의 친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 내졌어요.”

“그러구, 너 하나를 내가 공부시켜 귀뚜 세삼지만, 그것은 도리어 내 장래를 위해 좋지 못할 것 같애. 그러니까, 일전에 줄 그 권원을 가지구 너는 자립(自立)해야 해.”

“네.”

“그말 자신이 있니?”

“그리문요.”

형태는 희망에 가득 찬 얼굴을 쳐들었다. 잘 생기진 않았으나, 사내다운 얼굴에 골품한 기상이 엿보였다.

형태 같은 소년은 한번 마을만 바로 잡으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으리라고, 김 명수는 안심하고 형태를 혼자 사회에 내보낼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거리로 나와서, 형태는 무심코 전차를 타려다, 문득 일전일이 생각나서,

……그 때두 여기서 타구 혼났어. 인젠 전차 안탈려야. 그 까짓거 걸지, 뭐.

걸어야 삼십 분 밖에 안걸릴 거리였다. 형태는 뿔뿔 날듯이 몸도 마음도 가벼웠다.

내팔개를 치고 길을 걸던 형태는, 문득 어느 극장 앞에 와서 발을 멈추고 잠깐 생각에 잠겼다.

동호와 지주 다니던 극장이었다. 어제 그저께, 동호가 이 극장 안에서 자기를 찾아 다니다

### 동요 울 무 권 태 응

울무를 땀니다  
오돌돌돌  
동네아기 모입니다  
마당 그득

울무가 뵈니다  
오돌돌돌  
아기들은 줍습니다  
서로 먼집

울무를 주서다가  
무엇 하나?  
실에 꿰어 매달아  
염주 놀지



그림·경 현 응

가, 줄도까지 했을 줄은 꿈에도 모르는 형태였으나, 이 앞에 와서 문득 형태가 동호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심기한 일이 타 아니할 수 없었다.

……동호야!……

하고, 형태는 가만히 입 안에서 불러 보았다.

새 생활을 시작하려고 즐겨 날뛰는 마음 한 구석에, 이던지 모르세 꺼림직한 것이 남아 있

었다. 지금 생각하니 동호와 싸우고 해진 때, 화해를 못하고 받은 그 사실이었다고, 형태는 비르소 깨달은 것이다.

동호에게 있어서 그렇듯이, 형태에게 있어서도 역시 가장 가까운 벗은 동호였다. 동호까지 나쁜 길로 인도할 생각은 없었으나, 그 당시의 형태 자신의 생활이 그러했기 때문에, 형태





는 동호에게 대하여 뜻하지 않은 죄를 범하고 만 것이다.

그뿐이 아니었다. 동호가 자기의 마음을 너무도 몰타 주는 것이 분해서, 형태는 일찌기 자기가 맞본 그 피로움을 그대로 동호에게도 옮겨 주고 싶어, 무심코 “너는 개구멍만이야……” 아무 근거도 없는 이런 소리를 했던 것이다. 마침 동호가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말은 얼른 들으면, 정말인 것 같기도 들을 수 있었다.

……동호는 아직부……

필시 그 피로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리라 생각할 때, 형태는 어찌나 미안하고 죄스려운자, 몸부림이라도 치고 싶었고, 등공이라도 하고 싶었다.

그대로 골장 동호의 집으로 달려 가서,

……동호야, 내가 잘못했다. 그것은 떨정된 거짓말이었어. 너가 하도 밍기에 되는데로 저 꺼립다는 것이……

그렇게 사과하고 싶었다. 아저씨 하려면 아저씨라 부르겠고, 절을 하려면 절이라도 하겠다고, 형태는 지금 안전부절을 못 할만큼 커다랗게 귀우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갈 길이 바랐다. 세출발을 한시라도 늦출 수는 없는 것이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미 동호는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거짓말쟁이 형태 녀석. 누가 그런 미친 소리를 끝이 들을 줄 알구……

생글생글 웃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사과가 이잡일 늦는대도 아무 관계 없을 것이다.

형태는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걸음을 재촉하였다. 자리잡고 나서, 천천히 동호와는 만날 작정이었다.

그 다음 다음 날, 형태는 당배 담긴 상자뿔 줄로 메이 목에 걸고, 명동 ××권투 구락부를 찾아 갔다.

“아저씨, 덩께 피나 팔아 주세요요.”

들어 오는 형태를 마칠 문설에 섰던 김 명수가 가로 막으며,

“안판다.”

통명스럽게 말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웃는 것도 같고, 우는 것도 같았다.

“그러지 말구, 파나 팔아 주세요요.”

“이녀석이 ……안판대부 그래.”

“아저씨…파나 팔아 주세요요.”

형태는 시침이를 막 때고, 부득부득 대물었다.

“이 눈이……일 없대부……라 하하.”

참다 못해 김 명수가 먼저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하”

형태도 입을 막 버리고, 오래 갈만에 마음 속으로부터 한번 걸떨대고 웃는 것이었다.

(계속)

### 소년 과학 문답 집



이 세상에서 가장 궁금한 것 150가지를 추려, 선뜻선뜻 대답해 낸, 유익하고도 재미 있는 과학 문답 집! 자습, 학습, 입학 준비에 없어서는 아니될 책입니다.

편 찬 ★ 과학 동무회  
발행 ★ 글 벗 집

서울시 元路55 4區123

48쪽 책값 120원

문답대 文章閣 서울시 동호2





★ 굴 속에 만들어진 방 ★

여기 이상한 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텍사스주 산 속에 있는 맘모스동(洞=굴)으로, 세계에서 제일 크고 또 제일 이상한 굴입니다.

이 근처에는, 4.5km 이하의 긴 거리에, 큰 굴이 5개 이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이 맘모스동으로, 이 굴을 볼 경우 다 보려면, 1주일

이 걸린다고 합니다.

맘모스동 속은 굴이라기보다는, 그곳만으로서 하나의 이상한 땅 속 세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이 굴은 석회암(石灰岩)이라 하겠고, 하얗고 아름다운 바윗속에 둘러있는 것이어서, 마치 새로 하얗게 벽을 칠하고, 거기다 여러 가지 고운 장식을 차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다가 이 굴 속에는 내도 흐르고, 폭

포도 있고, 넓이가 45,5 메터나 되는 큰 도로가 되어 있는 곳도 있는가 하면, 겨우 기어 나갈만한 아주 좁은 곳도 있습니다. 이 굴 속 중의 "벨넛의 방"이라고 불리는 곳은, 길이가 182 메터, 높이가 2,2 메터, 그리고 넓이가 24,2 메터나 되는 넓고 넓은 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아름다운 형으로서는 무엇이랄 형언(形容)할 수 없을만큼 곱

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각색 모양을 한 하얀 물이, 이곳 저곳 흘러져 있고, 그것은 모두 자연의 모양 그대로 있으면서도, 그 모양이 너무나 오히려 아름다워, 누구든지 보게만하면 잠깐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에 못이겨 구경꾼이 물을 하나 슬쩍 가지고 가려고 생각 해도, 그것은 땅 속에서부터 나 있는 바위끼 때문

에 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아름다운 방에서 방으로, 일변 갑판하고 일변 놀라며 걸어 가노라면, "맘모스 동(堂)"에 다 닿습니다. 이곳은 길이 122 메터, 넓이와 높이가 45,4 메터나 되는데, 이곳에 오르는, 마치 저기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감이 난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모두 신기하고, 물건의 소리도 그저

췌 췌, 짹 짹 들릴 뿐, 아무 말 소리도 안들리고, 나면 너무 아름다움에 못이겨 눈만 뜨고 그저 다름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잘 정신을 차려 이 방을 휘둘러 보면, 사방의 벽이 모두 하얗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웁니다. 이 벽은 아라바스티나라하는, 대리석을 유리 같이 비치게 된 것 같은, 아주 고운 물질입니다. 이러한 돌이 아름다운 정막과 같이 빙



빙 뭉글게 늘어뜨려져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높이 27 메터 가량, 직경 9 메터나 되는 눈 같이 흰 물기둥이 6개나 있고, 이것이 천장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걸고 있는 길은, 빨강, 파랑, 검정, 자주빛 등의 석순(石筍)이 가득 차 있어, 꿈나라를 여행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 고민 이야기

## 욕심 많은 농부

★ 돌스토이 지음 ★ 그림 정국



① 거기서는 아무런 것이도 땅의 땅이 만원으로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즉 만약 당신이 매지 않기 전까지, 출발 점으로 돌아오지 못할 경우에는, 당신은 땅도 찾지 못할 뿐더러, 계약금도 볼수 없을 것이니 그리 알아 주십시오. 출발점은 어디든지 상관 없으니, 당신이 출발 점으로 갈 때는 꼭 우리들모 같이 가지요. 거기서 당신이 땅의 경계선을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은 삼을 가지고 가서 며칠 떠날 프로그램 구멍을 파고 땅죽을 세워 주십시오. 나중에 우리들이 는 두멍을 파겠습니다.”

땅 임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② 그 이튿날 아침 일찍이, 과호 오르는 머슴을 데리고 들로 나갔습니다. 조금 있으니 어제의 땅 임자도 왔습니다. 과호오르는 바로 그 자리를 출발점으로 삼고, 약속대로 계약금을 치르고서는 걸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과호오르는 처음부터 너무 힘하게 걸으면 설수할까봐, 처음에는 보통 걸음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십리쯤 가서 과호오르는 가지고 온 삼으로 구멍을 파서 땅죽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또 걸어 갔습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걸음이 빨라집니다. 이렇게 걸다가는 얼마가지도 못하고 해가 저물것 같으니, 빨리걸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⑩ 끝도 아니 보이는 평야를 과호오브는 북바로 향하여, 삼을 어깨에 메고 수건으로 땀을 씻으며, 짐차게 걸어 갔습니다. 얼마 안가서 과호오브는 풀밭에 주저앉더니, 경화를 벗어서 리미에 앉았습니다. 신발을 벗으니 등은 훨씬 가쁜데졌으며, 발바닥에 밟히는 풀도 어서 빨리 가라고 하는 듯 하였습니다.

이런 햇빛은 점점 더워가고 갈증이 나기 시작하였으나, 물병은 짐이 될까봐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나, 점심은 주머니 속에 넣고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과호오브는 혼자서 중얼거리더니, 말죽을 막고서 방향을 왼쪽으로 돌렸습니다.

⑪ 때는 점점 낮이 올라가고 더워는 환승 더 심해졌습니다. 때를 쳐다보고 벌떡 점심 때가 넘은 것을 알자, 과호오브는 숲 속으로 들어가 거기서 점심을 먹고, 시냇물로 목을 수질했습니다.

그는 숲 속을 돌며 보면서, “이 숲도 이제 내 것이 되겠다.” 하고 좋아 하였습니다.

잠시 동안이나 쉬었음으로 과호오브는 환상 동안은 유쾌히 걸었지만, 그것도 처음 뿐이요, 곧 땀이 흐르며 피로하여 나중에는 자꾸 비틀거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 지금 몇시간 고생하는 것이 일평생의 목이 될걸.” 하고 과호오브는 괴로운 것을 꼭 참으며 걸어 갔습니다.







⑨ 얼마를 가서 피곤으로는 보  
 의류로도 갈수록 지치고 하였으  
 나, 좌 쪽을 자세히 살펴 본후, 나  
 온곳에 비하여 음산의 물이 무성  
 하고 기동적 보이며,

“저기에 배마를 심으면 좋겠  
 다.”고 생각하고, 다시 그 땅도  
 넓기로 하고 땀 흘려가서 땀 흘  
 려다가 만물을 세웠습니다.

그는 땅을 네모나게 하려고 하  
 였으며, 지금 세번째의 모퉁이를  
 가는 길인데, 하늘을 쳐다보니  
 해는 어느 틈엔가 기울어지기 시  
 작하지 않습니까?

“아차! 큰 일 났군! 네모나게  
 하려나가는 절절로 아 절절다.  
 예마 쪽바로 돌아 가야겠다.” 하  
 고, 그는 바로 출발점으로 돌아  
 가기로 하였습니니다.

⑩ 온 몸에서 땀이 비오듯이 흐  
 르고, 발바닥은 거사에 찢리어 피  
 가 흘렀습니다. 다리는 피곤하여  
 서지도 못할 지경이며, 목 그 자  
 락에서 주저앉았으면 싶었으나,  
 한약 주저앉는 날이면, 해 떨어  
 지기 전에 돌아가기는 도저히 불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해는 점점 기  
 울어져 갑니다.

“내가 잘못했나보다. 혹시 시  
 간에 늦거나 하면 이 일을 어떻게  
 할담!”

그는 걱정을 하며, 이번에는  
 다름방질을 하기 시작하였습니  
 다. 조끼도 벗어 던지고, 장화도  
 내어 버리고, 모자까지도 쟁게치  
 고, 다름방질을 하는 것이었습니  
 다.







⑤ “아아 내가 너무 욕심을 낸 나보다.” 하고 파호오르는 후회 하였으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면서 그리로 달려왔습니다. 입 안이 바짝 마르고 옷은 맘에 젖어서 몸이 찻삭 달라 붙었으며, 두근거리는 가슴은 꼭 속마다 숯불을 담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쓰러지려는 몸을 간신히 의지하면서, 마지막 힘을 다하여 달려왔습니다. 때는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져 마악 지평선 위에 걸렸으며, 저너 노을 속에서 이글이글 마저 불덩어리처럼 새빨갳게 라고 있었습니다.

“아아! 해가 진다. 해가 떨어지...”

파호오르는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뛰어갔습니다.

⑥ 파호오르는 몸뚱이를 앞으로 기울여드리고, 있는 힘을 다하여 뛰었습니다. 다리는 간신히 몸을 의지할 뿐이며, 정신은 지금 어디를 가는지도 잘 알지 못하며, 그저 출발점으로! 출발점으로! 하고 외칠 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겨우 출발점에 이르자마자 파호오르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파호오르의 머슴은 주인에게로 달려가서 주인을 일으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파호오르는 이미 숨이 끊어지고, 입에서는 피가 흘러 나오고 있었습니다. 땅 입자는 가열다는 뜻이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머슴과 함께 그 자리에 무덤을 판습니다.

—파호오르가 정말로 필요한 땅은 이 무덤자리 뿐이었지요.

(끝)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 유대와 아랍은 어떠한 나라?

(2)

서울 사범 대학 강사 정 갑

유대는 어떠한 나라인가 하면, 요르단지구대(地溝帶)의 서쪽 지중해의 동안에 있어, 면적으로 보아, 우리 나라의  $\frac{1}{11}$  밖에 안되는 작은 지역에, 현재 약 백만 인구가 살고 있다. (대부분이 아랍족(族) 북쪽이 남쪽보다 비가 좀 많



은므로 밀이 잘 되고, 남쪽은 보리가 잘 된다. 요르단지구대는 해변보다 200m나 높은 곳으로, 대개 풀이나 나무가 나지 않는 거친 땅이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호수(湖水)에는 염분(鹽分)이 많아져,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 (사해(死海)의 염분 26%)

이 유대는 세계 최고의 문명을 이룩한 민족으로, 사천 년 전 아브라함의 역사로 시작되어, 그 당시에 이웃나라들은, 다신교(多神敎)를 믿으나, 이 유대족만은 천체만물(天地萬物)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신(神)이 창조(創造)하고, 그 만물을 지배하고, 그 중의 영

장(靈長)으로 인간을 창조하여,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였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창조자의 신을 믿을 뿐이고, 이러한 신앙(信仰... 종교를 믿는 것)을 가진 유대 사 람, 즉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최 선(最善)의 인간이라고 믿게 되었다. 이러한 신 조(信條)를 가진 종교를 유대 교라 하는데, 이 종교의 외래서 세계 최고의 문헌(文獻)인 구약전서(舊約全書)도 나왔고,

유대인의 독특한 민족적 자존심(自尊心)과, 굳센 종교심을 갖게 되고, 이러한 좁은 종교사상을 버리고, 세계 인류를 누구나 갈다는 사상을 가져야 한다고, 유대교의 개종(改宗)을 외친 예수도 나타나서, 신약전서(新約全書)란 종교의 최고봉의 문헌도 남기었다.

그러나 불행한 민족이라, 정치적으로 완전한 독립국을 이루지 못하였고, 옛날

에는 시리아, 페르시아, 팔라, 에칠르, 모소라제국(帝國), 또는 중세(中世)와 근세(近世)까지, 교리(敎理...종교상의 이치)를 전파 말리라는 회회교(回回敎)의 사라센제국, 튀르키이의 지배 밑에, 4천 년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일부 소수(少數)의 민족을 본국에 남겨 두고, 대부분이 보다 나은 생활을 찾아서, 전 세계를 걸고다 떠돌아다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민족은 그 마을이 종교를 통하여 완속되었음으로, 그 민족은 (民族魂)과 종교심은 피와 피를 통하여, 가진 철학과 구약과 노란을 이기고, 2천 년이란 긴 세월을 버티어 왔고, 오히려 학문, 예술, 사상, 금융(金融) 각 방면에 있어서, 세계를 흔들 수 있을 만큼 그 세력을 갖게까지 되었다. 나치스 독일 같은 나라 사람들이 미워하여, 한부로 수없이 죽이고 배꼈었다.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면, 프랑스 8백만, 미국에 4백 만을 비롯하여, 약 2천 만에 가깝다. 본국을 떠난지 2천 년 동안, 주로 튀르키이, 아라비아 민족이 지배하였음으로, 유대의 옛자취가 되돌리





# 과학 질문

(문) 선생님, 단풍이 떨어지는 것은 왜 일까요? 또 어떻게 떨어지는 것인가요? (서울 형성고 6년 황은희)

(답) 대기(大氣... 즉 공기) 중에는 언제나 약간의 수증기를 품고 있다. 이 수증기의 출처(出處)는, 물론 지구의 전표면적(全表面積)의 4분의 3을 포함(包含)하는 바다, 내, 호수, 눈, 습지, 동물, 그리고 식물

등에서 증발(蒸發)한 것이다. 그러나 대기가 품는 수증기는 일정한 한도(限度)가 있어, 수증기의 최대장력(最大張力)에 도달하면, 증발을 끝 짓지 않는다. 이러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포화(飽和... 극도의 양(量))에 이르도록 섞이는 것)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 포화될 수 있는 습도(濕度)는, 기온(氣溫)의 높고 낮은 것으로 인하여 되는 것으로, 기온이 높으면 높고, 기온이 낮으면 차더 차게 냉각(冷却)하여, 그 일부분은 비가

되고, 혹은 구름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노점(露點)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어떠한 조건으로 인하여 이같이 되느냐 하면, 제일 먼저는, 수증기를 품고 있는 대기가, 찬 물체(物體)에 부딪치면, 수증기는 냉각하여 지는 동시에 응축(凝縮)된다. 예를 말하면, 대기가 높은 산과 충돌하여서, 수증기가 응축되어 구름이 되는 것이다. 드 많은 수증기를 품고 있을 때, 온도가 서서히 떨어지는 대기와 섞일 경우에도, 수증기는 응축되어 구름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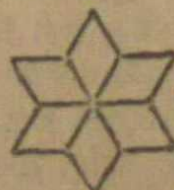
영국사령 관방에는 동로수기 적어(선) 영(국)이라 길어 온다  
그리고 영(국)은 그릇은 영(국)이라

맞추어, 유대국을 다시 세우는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다. 제1차 대전이 이 나라를 지배하던 터키가 싸움에 진 까닭으로, 이 기회에 유대가 독립될 것이었다. 그러나 터키가 이 때에는 영국, 프랑스 등이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게 되었으므로, 기구한 유대는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령(委任統治領)으로, 영국이 위임을 받아 지배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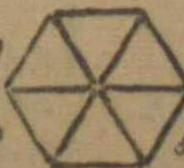
역사의 새벽은 다시 돌아와, 제2차 대전의 결과 영국은 세계에 항하여, 세계 지배와 경제적 압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유대의 독립 문제는 이제야 본질로 들어 서게 된 것이다. (계속)

없이졌을 것은 물론이다. 실로 하늘과 땅이 남아 있을 뿐이고, 구너진 불평이 땅글로 있을 뿐이다. 그러나 오랜 민족적 염원(念願)은 잊히지 않아, 근세에 민족자결주의(民族自決主義)와 발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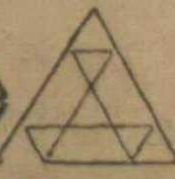
40페이지  
오락실  
해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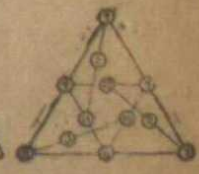
정십이면기



세로삼각기



평행이름기



사자비기





## 제 7 장 원 소 부자 (袁紹 父子) 2

### 四, 원가 형제 (袁家兄弟)

한편, 조 조는 현덕이 형주로 갔다는 말을 듣자, 곧 그의 뒤를 좇으려 하였다. 그러나 모사 정 옥이 나서서 간한다.

“원 소를 아직 없이하지 못하고 이제 형주를 치셨다가, 만약 원 소가 다시 기운을 회복하여 일어나기라도 한다면 큰 일입니다. 우선 허도로 돌아가셨다가, 내년 봄에 다시 군사를 일으키어, 먼저 원 소를 쳐 없애고, 다음에 형주를 무찌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조 조는 그 말을 옳게 생각하여, 군사를 이끌고 허도로 돌아갔다.

해가 바뀌어, 그 이듬해 정월—

조 조는 조 인·순 옥의 무리

를 남겨 두어 허도를 지키게 한 다음, 자기는 몸소 대군을 거느리고 관도로 나아갔다.

이 때, 원 소는 지난 해 세월에 크게 패하고 돌아와, 병상에 누운 몸이 그저 패히 낮지 못한 채로 있다가, 이 급보를 받고 즉시 모사들을 불러 의논하였다.

그 자리에서 그의 곁의 아들 원 상이 나와 말한다.

“부친은 아무 근심 마십시오. 제게 군사를 내리시면 곧 나가서 적병을 물리치겠습니다.”

원 소는 이를 허락하였다. 그러고 한편으로는 사람을 철주·유주·병주로 보내서, 원 담과 원 회와 고 간에게, 즉시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함께 조 조를 물리치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나이 어린 원 상은 형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그는 부친의 허락을 받

아대군을 통솔(統率)하게 되자, 곧 저 혼자 힘으로 적병을 물리치며 성 밖으로 나가서 전을 치고, 조 조의 전대(前隊)와 마주 대하였다.

그러고 조 조의 선봉대장 장 로가 말을 달려 나오자, 원 상은 남이 말리는 것도 듣지 않고, 말을 세쳐 나가 맞아 싸웠다. 그러나 물론 그는 장 로의 적수가 아니다.

단 삼합이 못되어 크지 패하고 달아나니, 장 로는 곧 군사를 휘몰아 그 뒤를 들이쳤다.

원 상은 그대로 패군(敗軍)을 이끌고, 밤을 도아서 기주성으로 돌아갔다.

병상에 있던 원 소는, 사랑하는 아들이 이처럼 패하여 돌아왔다는 말을 듣자, 그 마음이 너무나 놀라웠다.

병이 크게 덧쳐어 괴물 로하고 그대로 자리 위에 쓰러지니, 유 부인은 한편으로는 그를 구원하며, 한편으로는 그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을 절박하고,



모자 원 비와 물 기를 같이 안으로 물러 붙였다. 원 소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을 짐작하고, 곧 후사(後事)를 의논하기 위함이다.

원 부인은 부사(副使)와 함께 원 소가 누어 있는 평상 앞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원 소는 멀거리 눈을 뜨고 누어서 겨우 손짓만 할 뿐이요, 능히 입으로 말하지 못한다.

원 부인은 한 번 더 물었다.

“상 (尙)으로 후사(後事)를 이으르도록 하오리까?”

원 소는 한참 면어야 겨우 고개를 부여번고 덕인 다음, 문득 원 소의 크게 외치며 다시 입으로 피를 모하고, 마침내 세상을 떠났다.

실제 · 물 기의 무리는 곧 원 소의 하 복의 새로운 주인을 삼고, 그의 큰 형 원 담은 거기 장군(車騎將軍)을 봉하기로 하였다.

이 때 원 담은 군사를 거느리고 철 주를 떠나, 기 주를 바라보고 길을 재촉하여 오는 도중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

그는 크게 노하였다.

부친이 돌아간 뒤를 이을 사명은 마땅히 맞아줄 되는 자기 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데

어록(異蹟)이 우 원 상이가 의암(異蹟)도 하 복의 주인이 되고, 형되는 자기를 도리어 벼슬을 봉하여 주다니, 이것이 어찌 된 말이나?……

원 담은 조 조의 군사와 서로 견치고 대항 마당에서도, 정당한 평을 물리치지 보다는 기 주성



을 빼앗고, 아우 원 상이를 없이 하리라는 생각부터 온근히 마음에 품게 되었다.

한편, 이것을 눈치 채 원 상은, 형 원 담을 꺼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컸다.

조 조를 끌리친 다음에, 원 담은 반드시 군사를 들이켜 우리 기 주를 치고야 말 것이다. 그렇다면 구태어 군사를 내어서 형과 함께 조 조를 물리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만히 내버려 두어 조 조의 힘을 빌어가지고, 형 원 담을 없애 버리는 것이 상책(上策)이 아닌가? — 하고 원 상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이리 하여, 원 상은 성문을

닫이 닫고,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형을 도으려 안하니, 원 담은 조 조와 싸우다가 마침내 죽고, 조 조도 크게 패하여 달아나다가, 그 수하 군사 손에 목숨을 잃은 바 되고 받았다.

그러나 속담에도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립다”고 하였다.

원 수 같이 이 기면 형 원 담과 조 조가 죽고 그를 수하 군사에게로 조 조에게 침묵하여 버린 때, 원 상의 형제는 더욱 외로웠다.

그는 마침내 기 주성을 지키지 못하고, 물러 형 원 희와 함께 패군을 이끌고, 멀리 사막

(沙漠)을 건너 요 동(遼東)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요 동 태수 공 손 강(遼東太守公孫康)은 그들을 받기지 않았다.

원 희 형제를 자기 고을에 용납(容納)할 때, 조 조는 반드시 노하여 요 동에까지 군사를 불고 올 것을 그는 두려워 하였다.

그는 즉시 수하 관원들을 모아 상의 하고, 원 희와 원 상을 성 안으로 끌어 들어, 그들의 목을 벤 다음, 수급(首級)을 조 조에게로 보냈다.

이리하여 마침내 원 희는 멸망(滅亡)하고 하 복은 평정(平定)되었다…





## 제 8 장 단 계 (檀溪)

### 一, 적 로 (的盧)

한편, 현덕이 형주에 이른 뒤로 유 포는 심히 그를 후하게 대접하였다.

하루는 같이 앉아서 술을 마시는 자리에, 갑자기 탐마가 들이 와서 보하되, 장 무(張武)와 진 손(陳孫)이란 장수가, 강하(江夏)에서 백성들을 노략하여 인심이 매우 흉흉하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유 포는 놀라기를 마지 않았으나, 현덕은 곧 그에게서 군사 삼만을 빌어 가지고 몸소 강하로 가서, 수일이 못되어 장 무와 진 손을 배고, 강하의 모든 고을을 평복(平復)한 다음에 형주로 돌아왔다.

유 포는 멀리 성 밖까지 나가서 그를 맞아 들였다.

크게 잔치를 베풀어, 그 공로를 하례하는 자리에, 그는 말하

였다.

“아우님이 이렇듯 영웅이니 내 마음이 색 든든하오. 그러나 남월(南越)이 가끔 나의 지경을 침범하니 근심이오. 또 한중(漢中)의 장 노(張魯)나 강동(江東)의 손 권(孫權)의 무리들도 모두 걱정거리요 그러.”

그러나 현덕은 말하였다.

“저에게 세 장수가 있으니, 장 비로는 남월 지경을 순찰(巡察)하게 하고, 편 우로는 고자성(固子城)을 막아 장 노를 진압(鎮壓)하게 하고, 또 조 운으로는 삼강(三江)을 막아 손 권을 당하게 한다면, 다시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유 포는 마음에 크게 기꺼워, 곧 그의 말을 좃으려 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유 비를 시키고 미워하는 채 모는, 저의 주인이 그렇듯이나 그를 신임(信任)

하는 것이 마음에 좋지 않았다.

그때 그는 그길로 저의 누이 채부인을 불러 가 보고 가만히 말하였다.

“유 비가 저의 수하의 세 장수는 밤에 나가 있게 하고, 저는 형주에 남아 있으려 하니, 그대로 두었다가는 필연코 후환(後患)이 있을 것이다.”

이날 밤에 채부인은 유 포를 보고 말하였다.

“내가 가만히 소문을 들으니까, 우리 형주 사람들이 많이 유 비와 왕래를 한답니다. 이것은 좋지 않은 조짐(兆朕)이요. 어서 하루 바빠 다른 데로 보내 버리도록 하시우.”

“그것은 공연한 걱정. 현덕은 어진 사람이야.”

“제발 그럴제만 믿고 저시구로. 사람은 절 다르고 속다른 법이요.”

그러나 유 포는 그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튿날 유 포는 다시 현덕과 만나자, 그가 하고 있는 말이 굉장히 잘생긴 것을 보고 물었다. “전에 하고 다니던 말이 아니구려.”

“네. 본래 장 무가 타고 다니던 말인데, 이번에 손에 넣었습니다.”

“뢰어, 정녕 천리마(千里馬) 갈소.”

“그렇게 마음에 드신다면 형님께 드리겠습니다.”

유 포는 마음에 크게 기뻐, 사양하지 않고 그 말을 받았다.



그러나 그날 마을로 돌아가자 그는 외월(外越)이라는 사람에게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제가 본래 말을 좀 붙을 압니다마는, 이 말은 이마에 쇠점이 박였으니 이름은 적로(的盧)라, 라면 반드시 주인을 떠립니다. 장부라는 장수도 이 말을 타고 있다가 죽은 것이니, 장군은 절단코 타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듣자, 유포는 마을에 거닐적하여 곧 적로를 현덕에게 불러 보냈다.

“내가 말이 략나서 받기는 하였으나, 다시 생각하여 보니 아우님은 언제 또 전쟁에 나가야 할지 모르는 몸이라, 그때 도포 드리는 것이요.”

그러고 다시 말을 이어, “양양(襄陽)서 가까이 신야

(新野)라는 고을이 있소. 이 고을이 비록 적기는 하나, 전방(錢糧)이 제법 넉넉하니, 아우님은 군사들을 데리고 얼마 동안 그곳에 가서 계시오.”

자거 부인이 그 전날 일러주던대로 현덕을 적주 안에 두어 부지 않을 생각에서 한 말이었으나, 현덕은 누말 않고 응낙하였다.

그 이튿날, 그가 군사를 이끌고 성문을 나서려 할 때, 문득 한 사람이 앞으로 와서 읍(揖)하고 말한다.

“장군은 부디 그 말을 타지 마십시오.”

눈을 물어 보니, 그는 유포 수하의 이적(伊籍)이라는 사람이다. 현덕은 황망히 말에서 내리며 물었다.

“이 말을 타지 말마니, 어찌

하시는 말씀이요?”

“네,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어제 외월이 우리 주공께, 이것은 적로라고 하는 말이라, 라면 반드시 주인을 떠친다고 하며 그대 주공이 장군에게 돌려 보내신터이니, 부디 장군께서도 다시는 타지 마십시오.”

그러나 현덕은 말하였다.

“일러 주시는 말씀은 감사하나, 다만,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모두가 저의 명에 있기에, 어찌 한필 말이 사람을 해치고 말고할 도리가 있겠소 이까?”

이적은 그 높은 생각에 깊이 탄복하였다. 그때 현덕이 신야로 간 뒤에도 자주 그를 찾아 다니게 되었다.

## 동요 우리 애기 달 유 달 영

북돌이네 마루에서 보이는 달은  
북돌이 달

이뿐이네 울안에서 보이는 달은  
이뿐이 달

우리집 마당에서 보이는 달은  
우리애기 달

동네중에 제일 큰 우리 애기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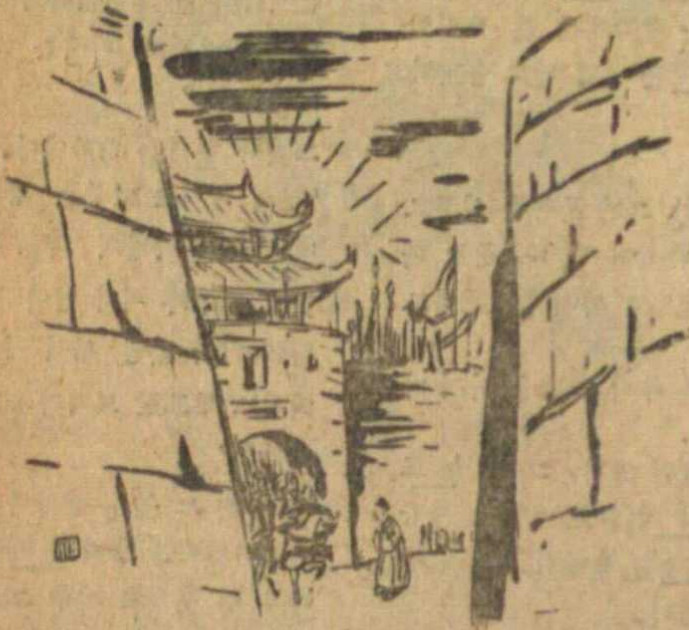


그림·정현웅



## 二, 실 언 (失言)

그 이듬해 봄—,  
갈부인이 신에서 아기를 낳았다. 이 아이가 유 비로서는 평생의 일점혈육(一點血肉)인 유 선(劉禪)이다.



그날 밤, 흰 누루미 한마리가 지붕에 와서, 마흔아홉번을 높이 울고 서편 하늘로 날아가더니, 날을 때에는 또 이상한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하였다.

현덕은 유 선의 아명(兒名)을 아두(阿斗)라 칭하고 심히 귀여워하였다.

그 해 겨울이다.

현주에서 사람이 칭하러왔다. 현덕은 즉시 그를 따라 유 포를 보러 갔다.

두 사람이 후당에 머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기 한참만에, 유 포가 갑자기 눈물을 머금고 뉘한다.

“아우님도 아시다싶이, 내 접처(前妻) 진씨(陳氏)의 몸애

서 낳은, 기(琦)는 위인은 비록 착하나 너무 나약하고, 후취(後娶) 채씨(蔡氏)의 소생(所生) 중(琮)은 아이가 워낙 총명하여, 내 바른 대로 말씀이지 심히 사랑하는 터이요.

그야 나도 맞아들을 제치 놓고, 어린 아들을 세우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인 줄은 아오마는, 다만 채씨 집안에서를 훌쩍 군무(軍務)를 잡고 있으니, 만약 기를 세웠다가는 반드시 위에 무슨 번고가 있을 것이라, 그래서 아직 후사(後嗣)를 결정 못하고 늘 근심중에 있소.”

듣고 나서 현덕은 조용히 말하였다.

“그것이야 두말 없이 큰공자(公子)를 세우셔야 하지요. 만약 채씨 집안의 권세 많은 것이 염려 되신다면, 차차 꺾어 내도록 하십시오. 아무 까닭 없이 장자(長子)를 폐(廢)한 이는 것은, 절단코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 포는 그 말에 아무 대답 안하고 눈을 감아 생각에 잠긴다.

현덕은 잠간 그 모양을 딱하게 바라보다가, 문득 고개를 돌이켜, 자기 처에 끌려 된 병중 쪽으로 눈을 주었다.

소문에 의하면, 유 포가 남과 이야기할 때면, 반드시 갈부인이 병중 처애가 숨어서 그들의 수작하는 것을 엿듣는다고 한다.

(어쩌면 지금 저 병중 처애 갈부인이 서 있어, 내가 한 말을 들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만약 그렇다면 나는 공연한 말을 하여, 그의 원망만 사게 되지 않았나?……)

현덕은 속으로 은근히 위수처며 자괴를 일어 속간(期間)으로 갔다.

두심코 보니, 그 사이 넓적다리에 다시 살이 올라서 두둑하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두줄 땀을 흘려 내렸다.

그가 다시 자괴로 돌아오자, 유 포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며 물었다.

“얼굴에 눈물 흔적이 뭘 일까요?”

현덕은 가만히 한숨 짓고 대답하였다.

“오래 동안 말을 타지 않았더니, 넓적다리에 살이 다시 돋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덧없이 흘러 가지만, 그저 공업(功業)은 이루지 못하였으니, 이



것이 마음에  
실습니다.”  
유 포는 위  
모하여 말하였  
다.

“내가 소문  
에 들으니 조  
조가 일찍이  
말하기를, 지  
급 천하에서  
진달 영웅이  
되고 할만한  
사람은, 오직  
자기와 아주  
남 밖에 없  
다고 하였습  
니다. 조 조  
같은 인물로

도 아주님께지는 한 수를 겁  
는 데에, 어찌 공업을 세우  
지 못할까 근심하던 말씀이  
요?”

그 말에 현덕은 그만 무심코  
입을 놀려 버렸다. 역시 술이  
좀 취한 맛도 있었던 것이다!

“사실, 제가 때를 한번 만나  
기만 한다면, 천하의 변천중  
지 못한 무리들이야 무어 말  
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소리를 듣자 유 포  
는 감잡히 입을 더물고 말어  
었다. 현덕은 다시 한번

(내가 격적은 소리를 또 하였  
군...)

마음으로 취우치고, 종종히 관  
사로 돌아 갔다.

### 三, 단 계 (檀溪)

현덕의 말에, 역시 유 포는 심  
마가 좋지 못하였다. 그를 보내



고 안으로 들어 가지, 기다리고  
있던 채부인이 곧 입을 열어,

“네 오늘날도 명종 뒤에서 들으  
미니까, 아주 남을 업신여기  
는 수가, 장차는 우리 형주도  
한 입에 삼켜 버릴 생각이 분  
명합니다. 전작 없이지 않으  
면 후환이 필진요.”

하고, 한사 바며 현덕을 죽여  
버리라고 충등인디. 그러나 유  
포는 종시 아무 말이 없다.

그 모양을 보자, 채부인은 가  
만히 밖으로 나와, 저의 오라비  
채 모를 불러다가 의논하였다.

“유 비가 우리 충이를 세우지  
말라고 주장하며, 또 우리 채  
씨 집안의 권세를 꺾아 버리  
라고 자꾸 권하니, 이 노릇을  
어찌 하였으면 좋소?”

“그럼 별 도리 없다. 우선 죽  
어 없애고, 나중에 주몽께 어

줍기로 하지.”

채 모는 즉시 물러 나와 군사  
들을 모아 들었다.

그러나 이것을 이 적이 알았  
다. 안 이상에는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는 즉시 판사로  
현덕을 찾아 가서, 어서 한사  
바며 몸을 피하라고 일러 주었  
다.

현덕은 소스라치게 놀라, 언  
제 날이 밝기를 기다릴 사이도  
없이, 그대로 말을 달려 신야  
로 돌아 갔다.

이리 하여, 우선 급한 화는 면  
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날 형주  
에서는 다시 사자가 찾아 왔다.

양양에 각 고을 관원들이 모  
이는데, 유 포가 병이 있어서 못  
나가니, 부더 현덕이 대신 나가  
서 주인 노릇을 짐 하여 달라는



것이다.

(이것이 필연코 채 모가 나를 해치려고 꾸며 낸 일이지니...)

속으로 짐작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양양은 진야에서 머지 않은 터에, 아무 이유 없이 아니 가기도 이러한 노릇이다.

가야 읍은가, 아니가는 것이 마땅할까, 의논들이 분분할 때, 조 윤이 나서서 말하였다.

“모처럼 청하는 것을 아니가지지는 못하십니다. 채 모가 설혹 무슨 일을 꾸미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군사 삼백명만 이끌고서 주공을 모시고 가오면, 설마 아무 일 없겠지요.”

현덕은 그 말을 좃차, 마침내

조 윤을 배리고 양양으로 갔다.

현덕이 이른 것을 보고, 채 모는 마음에 은근히 기뻐하며, 가만히 겨 월을 청하여 의논이다.

“등문은 내 아우 채 화(蔡和)가지키고, 남문은 채 중(蔡仲)이 지키고, 북문은 채 훈(蔡勳)이 지키기로 되었으니, 유 비는 바로 독에 든 쥐요. 제가 어디를 가겠소?”

“어찌서 서문은 지키는 사람이 없소?”

“서문이야, 일부러 군사를 보내 지킬 것이 무어요? 단 계(檀溪)가 앞을 막 가로 막고 있는 터에……”

“참 단 계가 있구면, 그러나 내가 보니, 조 윤이 한사를 떠나지 않고 유 비 곁에 붙어 있으니 일이 곤난하구로.”

“그러기에 내가 벌써 군사 오

백명을 청 한데다가도 갈아두었소.”

“그래도 내 생각에는 따로 외청(外廳)에다 술자리를 차리고, 조 윤을 그리로 불러 낸 다음에,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소.”

“마는 참 그제 좋겠소.”

이러한 흉계(凶計)가 있는 줄도 모르고, 이날 현덕은 격로를 타고 아문(衙門)으로 들어가, 후원에다 말을 매어 놓게 한 다음, 각 고을 관원들이 모두 당위에 모이기를 기다리어, 주인의 자리로 나가서 앉았다.

조 윤이 허리에 칼 차고 현덕 곁에 한사를 떠나지 않고 서 있을 때, 정수들이 들어 와서 그를 보고, 허절으로 나가자고 경한다.

조 윤은 처음에는 사양하고 듣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 것도

모르고 현덕이 자주 가보라 권한다. 그래 조 윤은 하는 수 없이 허절으로 나갔다.

이때 채 모는 현덕이 이끌고 온 삼백명 군사를 모조리 관사로 돌아가게 하고, 술이 멎은 때 돈 뒤에 일을 시작하며 기리를 노렸다.

그러자 술이 세 술째 돌다.





이 적이 잔을 들고 **현덕** 앞으로 나가, 남들 못보게 눈썹을 하고, 다음에 가만히 속삭이었다.

“웃을 고쳐 입으시지요.”

**현덕**은 그 뜻을 짐작하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측간으로 가는채 하고 밖으로 나왔다. **이적**은 즉시 그의 뒤를 따라 후원으로 들어 가지, 귀에다 입을 대고 일러 주었다.

“**세 모**가 또 장군을 해치려 합니다. 동문·남문·북문 세 곳은 군사가 지키고 있으니, 서문으로 나가십시오. 한시가 갑합니다.”

**현덕**은 깜짝 놀라, **적로** 고삐를 잡고 동산 뒤문으로 나가, 곧 몸을 날리어 말에 올랐다. 이후 종자(從者)를 부를 겨랑이 없다. 그는 혼자서 서문을 따라고 말을 급히 달렸다.

서문에 이르자, 문 지키는 군사가 앞으로 나서며,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는다. **현덕**은 아무 말이 그대로 말에 채찍질을 더하여 밖으로 나가 버렸다.

그러나 문을 나서 두어마장을 더못가, 문득 큰 시내가 앞을 막 가로 막는다. 원제 넓기도 하며너와, **상강(湘江)**과 물이 서로 통하여 물결이 매우 험한 단계다.

넷가까지 가보았으나 전년 도리가 없다. **현덕**이 다시 말머리를 돌리려 할 때, 멀리 성안에 티끌이 크게 일어나며 추병(追兵)이 이제 곧 이를 형세다.

“이번에는 꼼짝 없이 죽었구나!……”

**현덕**은 다시 말 머리를 돌리어 넷가로 갔다.

넷물은 깊고 물결은 또 험하다.

그러나 뒤에 추병은 또 급하다. 도저히 한시를 그대로 머물러 있지 못할 형세다.

**현덕**은 그대로 물 속으로 말을 붙였다.

그러나 두어 걸음을 못을기어 **적로**는 앞다리가 물 속으로 텅 빈! 빠지며, **현덕**은 온 몸을 물을 흠뻑 뒤졌다.

**현덕**이 얼떨결에 채찍을 번쩍 들며,

“**적로**야! **적로**야! 네가 오 날날 주인을 해치느냐?”

한마디 크게 부르짖었을 때, **적로**는 갑자기 물속에서 출제! 몸을 솟추며, 단계 넓으나 넓은 시내를 그대로 뛰어 건넜다……  
—계속—

소년 삼국지 어려운 말 풀이

- ▲후사(後事)……뒷일, 죽은 뒤의 일.
- ▲이복(異腹)……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것.
- ▲의담(猘膽)……분수에 넘치는 것을 하여 최충한 것.
- ▲상책(上策)……그중 좋은 계책.



머리에 좋은 식물(食物)  
 뇌에 좋은 식물은 달걀의 노란자우, 콩, 다시마, 미역 등입니다. 달걀의 노란자우는 “캐지징”이란 뇌의 성분을 돕는 지방(脂肪)이 있고, 콩에 있는 인(磷), 해조류(海藻類)에 있는 요오드(沃度), 모두 뇌에 중요한 성분입니다.  
 우선 사람이 비교적 뇌가 좋은 것은, 어머니가 산후에 미역을 많이 잡수시는 관례라 합니다. 꼭 고기만 참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 ▲용납(容納)……너그럽게 받아들여 주는 것.
- ▲진압(鎮壓)……진정(鎮定)하여 위압(威壓)하는 것.
- ▲신임(信任)……믿고 맡기는 것.
- ▲후환(後患)……뒷날의 걱정근심.

종로서원 동화책 제1집 **“외와 장미”**의 배편을 둘러서 편역한 동화집입니다. 그리고 결장과 속그림은 여러 분이 잘 아시는 **김외환** 선생께서 그려 주셨습니다.

# 설희와 장미

조풍연 · 심은정 · 문용구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그림 동화 가운데서 제일 재미있는 설

책 값 150원 (종교 10원)  
 서울종로 3街 16 **종로서원 발행**



# 과학 공부



- ▲조경(彫景).....일이 미리 드러나 지는 비밀.
- ▲전량(錢糧).....돈과 곡식, 전구(錢穀)이라고도 한다.
- ▲추(搦).....두 팔을 활짝 모아 휘아래로 흔들어 경배하는 것.
- ▲일혈혈육(一點血肉).....자기가 낳은 단 하나의 자녀.
- ▲전처(前妻).....이전의 아내.
- ▲나약(懦弱).....굳세지 않은 것.
- ▲후취(後妻).....두번째 아내.
- ▲소생(所生).....자기가 낳은 자녀.
- ▲군무(軍務).....군사(軍事)에 관한 사무.
- ▲공자(公子).....귀한 집안에 태어난 자제.
- ▲측간(側間).....뒷간.
- ▲공업(功業).....나라를 위하여 힘을 다한 공로.
- ▲외청(外廳).....바깥쪽.
- ▲아문(衙門).....아들의 존칭.
- ▲추병(追兵).....뒤를 쫓는 군사.

★ 열  
순이...에 준식아! 난 감기를 구  
 싶어.  
준식...이런 바보야 무슨 까닭야?  
순이...선생님께서 사람은 열이  
 있어야 성공된다고 그러시던걸.  
준식...뭐 뭐...? (서울 수공고  
 3년 이 중구)

★ 의 사  
어떤 병원에서  
 의사...이 사람 죽  
 었군.  
병자...아네요 나  
 는 살아 있어요.  
 열에 있던 병자 아내가,  
 아내...아이 어보, 당신보나는 의  
 사 선생님이 더 잘 알지않소,  
 가만히 죽은척 하고 있구로.



(서울 밤산고 6년 집 명진)  
★ 동물원 놀이  
복동이...어머나 우리 동물원 놀  
 이 때, 응?  
어머나...동물원 놀이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복동이...내가 원숭이가 될지.  
어머나...그런 언마는?  
복동이...어머님 원숭이에게 과  
 주는 사람이제?  
 응? (서울 하  
 황집터 542집  
 창집)



# 그림 속의 그림



버선목이라, 안을 뒤집어 보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슨 혐의(嫌疑)……서로 의심(疑心)을 받을 때, 무엇이냐고 자기의 잘못이 아니냐고, 또는 자기가 옳은 것이 아니냐고, 자기의 바른 것을 밝힐 모리가 없을 때 이런 말을 쓰는 것으로, 버선이라면 뒤집어서 속을 보여 줄 수 있지만, 이러한 것은 어찌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부귀빈천(富貴貧賤)은 천래 바뀌 돌듯 한다

운명이란 팔레 바뀌 모양, 언젠가 번갈아 온다는 것이니, 누구나 다 지금 자기가 잘 산다든지, 공부 잘 한다든 남을 업신여긴다든지, 또는 높은 지위에 앉았다든 아랫사람을 소홀히 한다는, 이러한 것을 타이르는 말이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여라

비록 입은 삐뚤어졌더라도, 말만은 바른 말을 하란 뜻이니, 주위가 어찌됐든, 남은 어떻게 하든간에, 언제나 정직하게 말하며 평등을 하란 말이다.



네 말이 좋으니 내 말이 좋으니 하여도, 달려보아야 안다

서로 내 것이 더 좋다고 떠들며 자랑들을 하지만, 실제로 말을 달러봐야 좋고 나쁜 것을 안다는 것이니, 알미없는 공론(空論)을 지껄리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것이다.



그림·정 현웅



## 【뒤 결장 그림 설명】

오늘날 우리가 음악을 가진 것과 같이, 원시인들도 음악을 가졌었다는 것은, 옛날 무덤 속에서, 나무북이나 떠나 도기(陶器)로 만든 퍼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음악이란 민요와 옛날의 종교음악으로부터 발전한 것이며, 노래는 음악의 가장 단순한 것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혼자서 부를 수도 있고, 또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함께 가지고, 여러 가지 소리로 합창할 수도 있습니다. 악기의 큰 합대(合隊)를 “오오케스트라”라고 부르고, 네 사람이 같이 부르는 것을 “사부합창” 내 개의 악기로서 연주하는 것을 “사부합주”라 합니다. 크고 복잡한 음악의 형식은, 만일 오오케스트라를 위한 것이라면 “썸포니”라 하고, 하나 또는 두 악기를 위한 것이라면 “소나타”라 부릅니다. 또 오오케스트라와 함께 말을 노래로서 나타내는 음악을 “오페라”라 합니다.



## ☆의 견 보기부



### ① 성냥개비 요술

성냥개비를 여섯개만 옮겨 놓아 가지고, 1, 2, 3, 4, 5, 6, 이 여섯의 세모꼴을 능형(菱形)으로 고쳐 보십시오. 또 그리고 성냥개비 여섯개를 치우고 여섯개를 옮겨 놓아서, 1, 2, 3, 4, 5, 6과 같은 세모꼴 여섯개를 만들어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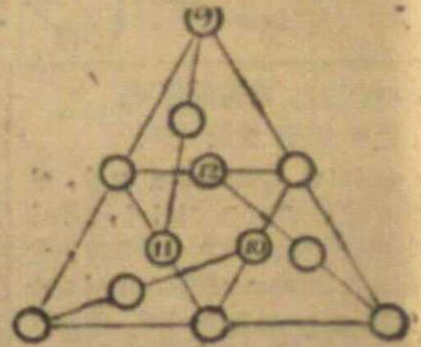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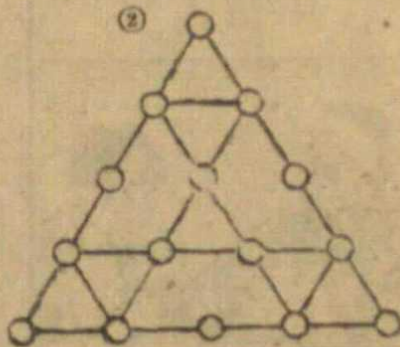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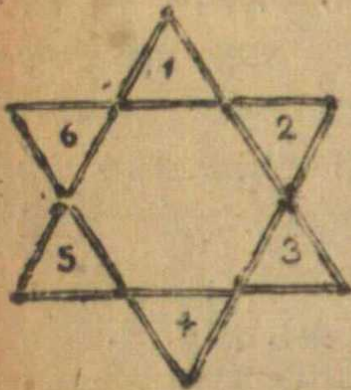
### ② 줄어 놓기

그림처럼 바둑돌이 놓였습니

다. 이 바둑돌들을 걸 난배를 똑 한 번씩만 지나면서 다 집어 보십시오. (걸 난배는 다 한 번씩 지나야 합니다.)

### ③ 숫자 써 넣기

아무 것도 아니 큰 불그라미 속이다. 1에서 8까지 같은 숫자를 쓰지 말고, 적선 위의 수를 합하면 어디고 다 1이 되게 적어 넣으십시오. (매달 29 페이지에)



## ☆ 이상한 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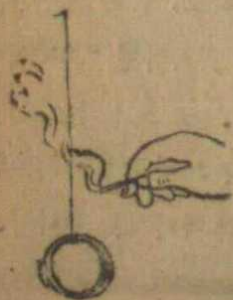
한가닥의 실에다 세 무거운 돌건을 매달아 놓고, 실을 태워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신기하고 이상한 실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무명실을 1.5m가량의 길이로 자른 다음, 이 실에다 담뱃 비누를 칠합니다. 그리고 비누칠한 실을 2시간 이상 소금물에 담가 두는데, 이 소금물 만드는 법은, 보통 우리들이 집에서 쓰는 칩에다 작은 스푼 셋의 소금을 묻것으로, 상당히 진한 소금물입니다. 그 후 이 실을 집어 내어, 물기없이 바짝 말립니다. 이것으로써 요술부리는 실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아! 인제는 어머니나 누나의 가락자를 빌려 실 한쪽에 붙들어 매고, 다른 한쪽은 천장이나 벽

에 있는 곳에 매달 다음, 성냥을 그어 실이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실이 타기는 하지만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꼭 한번 해보십시오. 동무들도 드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 고리 배기

끈을 뽀꼬리를 뽀내는 재미있는 장난. 순서대로 해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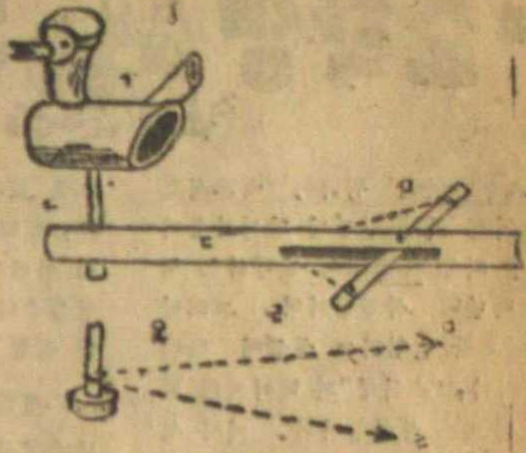


# 총추는 새

이 총추는 새를 만들려면, 먼저 대(竹)로 몸통이(7)를 잘라, 왼쪽에는 마디가 있는 대를 붙이고, 오른쪽에 수봉이를 달는다. 또 오른쪽에는 꼬리가 되는 대를 붙이고, 다시 배에(L)의 봉근 대를 꽂아 붙인다. 그리고 길이 33cm 가량의 대를 가지고, 오른쪽에는(2)의 도랑(溝)을 파서 만든 구멍에다, (2)(2)의 막대기

를 가로 끼웁니다. 끌로 실을 몇갈 꼬아 굵게 한 것을, 그림 2와 같이 둥근 대(L)과 가로막대(2)(2) 파에 양쪽으로 연락시킵니다.

노는 법은 (2)(2)의 가로막대로 번갈아 가며 움직이면, 갑은 실의 마찰(摩擦)로서, 새는 오른쪽 왼쪽으로 명실당실 춤을 추는 것으로, 참으로 그 모양은 귀엽습니다. 그



리고 이것은 새 뿐만 아니라, 원리(原理)만 같으게 하면, 인형이든 다른 짐승이든 아무 관계 없이,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 동생들이 더 기뻐할 선물입니다.

## ☆ 노래의 박자(拍子) ☆

노래의 박자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여러 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박자란 노래 마디 마디가 길고 짧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쉽게 아는 방법은, 여러 분들 집에 매어 달 피종(柱時計)의 똑딱 똑딱하는 소리를, 다음과 같이 세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 1·2 || 1·2 || 1·2 || ... 2박자

(나) 1·2·3 || 1·2·3 || 1·2·3 || ... 3박자

(다) 1·2·3·4 || 1·2·3·4 || 1·2·3·4 || ... 4박자

(문) 할아버지 그간 안녕하십니까? 칙칙 박사 학위를 언제 어느 대학에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아 그럼 문제로 물어가지, 어떤 사람이 정보바리꾼 두 개 들고 나무다리를 건너려 하였으나, 짐 두 개를 다 들고 건너면, 다리가 붙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왔다 갔다 두 번에 짐을 나르지 않고, 한 번에 짐을 나르고, 또한 다리로 붙어지지 않게 전였습니다. 어떻게 전였을까요? 이때 문제를 말하고 나니까, 좀 쉬운 것 같군요. (경기도 강화도 김 용수)

(답) 인제 계말았나? 찾아온 기차값도 못의렸네. 그러, 그 사람은 **칙칙** 큰 줄리웃 손으로

계주를 부리며 건너갔네, 왜 지네 누이 동생들이 형 걸으므로 만들어 장난하지 않나? (칙칙 박사)



(문) 자아 할아버지 박사장을 들고 준비 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蘭...마

디)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서울 여중교 33년 황 경석)

(답) 이번 말은 어찌 이렇게 상거운 문제만 물어오는지. 노래란 옛일제, (칙칙 박사)



(문) 칙칙 선생님 그간 안녕하십니까? 이번엔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칙칙 매답을 하시는지... 어떤 사람이 상점에 가서, 세말(歲末) 잉크를 달라고 한즉, 점원이 일본 잉크를 내주었다 합니다. 매체 그게 무슨 잉크까요? (경북 안동 성진환)

(답) 세말이면 12월이 아닌가. 12월(十二月)을 함께 붙여 쓰면 청(靑)자, 즉 푸란 잉크지 뭐야. (칙칙 박사)





# \* 소학생 구락부 \*

## 만들고 나서

▲우리들을 위하여 애쓰시는 "소학생" 기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현에서 발행하는 책을 대단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소학교를 졸업하고 살급에 다니게 되어, "소학생"과 헤어지게 되니 참으로 섭섭합니다. 기자 선생님! 소학교를 떠나면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등교에 일본말을 배우다 그만 두어, 지금 조선에 많은 일본말 책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 아무르록 일본 책에 지지 않도록, 재미있고 자세한 책을 저희들의 선물로 내어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자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서울 재동고 졸업생 추 언일)

△좋은 말씀입니다. 이후 좋은 책을 많이 내기에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기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두 번째 인사를 선생님께 올립니다. 저는 "소학생"의 탄 동무입니다. 지금 어린이 잡지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소학생"이 제일 좋아서 이것만 봅니다. 두 번째 번번하지 못한 작품을 보내오니, 두 번째 인사와 함께 받아 주십시오. 이만 그리고 안녕히……(서울 수송고 3년 조 윤)

▲우리 어린이의 등불이 되어 주시는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어린이가 앞으로 앞으로 더욱 빛나게 지도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번번하지 못한 작문과 등

요를 보내오니 잘 지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 여쭙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보내도 괜찮습니까? (서울 재동고 3년 박 광현)

△괜찮습니다. 많이 많이 써서 보내십시오. (기자)

▲"소학생"을 위하여 밤 낮으로 애쓰시는 선생님들, 제날의 조선을 아낌없이 주이며, "소학생"을 편집하시는데 얼마나 바쁘십니까? 저는 어른 소학생입니다. 나이는 먹었어도, 마음은 어린이 같아, 함께 뛰고 웃고 참으로 즐겁습니다. 어른 소학생도 작품을 보낼 수 있습니까? 또 작품에는 반드시 칭찬 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의 건강을 빌며, (경북 안동 광석동 205 조 상국)

△어른 소학생도 관계없으니 작품을 많이 보내 주십시오. 작품평은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이후 피드백 함께 실리겠습니다. (기자)

▲저는 어느 시골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국민 학교를 일찍이 졸업하고 중학교에 다니는 오늘날, "소학생"과 같은 좋은 글동무를 가진 국민 학교에 다니는 여러 어린이가 한없이 부럽습니다. 선생님! 아무르록 중학생이라 비타지 마시고, 함께 지도하고 사랑하여 주십시오. 되지 않은 등요 한편 보냈습니다. 그럼 안녕히. (경북 안동 농림 중학교 석 용원)

\*어느덧 나뭇잎은 금세 떨어지고, 드높은 하늘은 바다 끝속같이 크고라고 한다. 그 시원한 하늘을 한 번 훨훨 날아 갔으면! 공부하기 좋고, 운동하기 좋고, 책임기 좋고, 답답이 있고, 기운이 불끈불끈 솟고,……가슴이 좀 더 걸렸으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그러나 뒷이어 가슴이 딱져 울것은 비안한 노릇이니, 주위와 석회 이걸만한 든든하고 굳센 마음과 몸을 지금이 때에 준비하십시오.

부제정과 함께 이번 호는 "아현" 원상 달진 작품" 특별으로 꾸몄다. 어떠한 작품들이 흥미있는가. 장 지영 선생님의 봄과 나비와 함께 잘 읽어 보십시오.

★원상 작품 특집을 하느라고, 다달이 인쇄하던 "소년 과학사"와 "등요 맛보기"는, 이번 호일 쉬게 되었으니, 써주신 선생님과 독자 여러 분은 널리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김 은성)

1946年 11月 1日 發行  
 소학생 · 값 90 원  
 11월치 ★제 62호  
 編輯·發行人 尹石重  
 印刷人·主筆  
 發行所 兒協  
 1947年 9月 30日 59號 249號  
 서울 總發行 乙酉文化社  
 總發賣 乙酉文化社  
 서울 鐘路 2街

서울신문社 印刷局  
 1947年 9月 31日 59號 149號



# 구름

곡번호 00528

黃源榮 譜  
尹克榮 曲

*P* 구름이 하늘에서 - 새 주를 부릅니다 - 어머니  
 바람이 가만가만 - 구름을 때립니다 - 어머니

저것 - 좀 보 구름이 흰 몸 - 갈애  
 저것 - 좀 보 구름이 강물 - 갈애

햇빛 - 은 마스하게 마루를 비춥니다

빛 - 은 - 일마 손을 아가는 흔 - 듭니다 -



**차\*차\*차**

이 그림은 4000년 전 현현금(七絃琴)으로부터 지금 보시는 피아노에 이르기까지의 변해 온 모양을 표시한 것입니다. 오늘날 악기(樂器)의 진보는, 알프 마치트 슬(鼓)을 두드리는 달시머어(Dulcimer=현악기의 일종으로 피아노의 원형)가 발명된 이후에 반짝이던 것입니다. 그러나 피아노의 놀라운 진보는, 기이(機盤)가 발명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16세기를 통하여 작작 불타는, 그러나 아주 흡사한 스피네토(유전(有鍵)악기의 일종)모양의 악기가 약간 여러 가지 있었습니. 이것들은 1711년 이때의 사람의 손으로 발명되었습니다. 피아노의 원형이었던 하아프시코노드(이것도 유전악기의 일종)의 모양은 넓은 것이었고, 수림(1851) 피아노는 그 후에 되었습니다. 그 후 여러 가지로 연구한 결과, 완전한 악기의 발전에 대한 빛나는 업적은, 영국 사람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림 백과 사전 ⑤

세계 각국의 악기

(설명 39 페이지아)

나무로 만든 북



쿠우바의 북



퀘어드 레글



아메리카 인디안의 북



아프리카의 북



립크르 퀘어드 하아프



베르 만든 악



아프리카의 풍소



피리 부는 사람



다이루(琵琶)



버어마의 악기



단 펠스



달시머어(일종의 현악기)



조선의 가야금



아코오더온

스콧트랜드의 피리



기이타아



젠 피리